

멀티미디어 교수매체수업 설계를 위한 프리웨어 활용방안*

- 중국어 회화수업을 중심으로**

朴 贊 旭
(서울여자대학교)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멀티미디어 수업을 위한 프리웨어 및 사용방법을 소개하고 그것을 중국어 수업, 특히 회화수업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업 설계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¹⁾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교수설계(instructional design)와 수업진행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교수설계를 하면서 중국어 교육 종사자라면 한 번쯤 몇 십 초 분량의 동영상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이 논문은 <2011年 韓國中文學會 秋季學術大會/第74次 定期學術大會>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프리웨어’는 원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하지만 본고에서 논의될 ‘프리웨어’의 범위는 순수하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Windows 운영체제를 사용해야만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 또는 무료로 우선 사용 후 향상된 기능을 추가구매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자료를 찾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웹서핑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몇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찾은 자료 중 일부만 필요하다거나 몇 개의 편린들을 가공해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자료가 완성될 때도 있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음에도 가공을 통해 손에 쥘 수 있는 결과물은 많지 않을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투자가 학습자들의 반응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때도 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려다가도 쉽게 손을 댈 수 없거나 시도했다가도 그것의 효율성에 의문을 품는 이유다. 멀티미디어 자체는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장점을 무색케 할 만큼 교수자가 해야 하는 공이 너무 크다는 점은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은, 첨단기술의 발달과 영향력으로 인해, 날로 중요시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교재 외로 준비해야 하는 교수자의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수업시간을 수업설계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교수는 평소 꾸준하게, 훑고 지나가듯 확인하더라도, 확보한 자료를 일독해야 하고 또 필요한 분량만큼 가공하여 집적해 두어야 한다. 자료를 가공하는데 있어서도 PC 사양, Player 종류, 프레젠테이션 도구 등을 고려해야 하며 프레젠테이션 도구에 탑재하고서도 주변 텍스트와 배색에 맞게 다시 재가공을 거쳐야 하는, 적지 않은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웹상에 올라있는 프리웨어는 그 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무수히 많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핵심기능도 다양하여 GomPlayer나 KMPlayer 등과 같이 ‘오락’에 그 기능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AnCamera나 AnCamcorder처럼 ‘기록’에 핵심 기능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

2) 이옥주(2008:277)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자가 매체 활용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실제 활용도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였는데, 특히 영상매체의 활용에 있어서는 “적합한 자료의 선정과 편집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적 노력의 필요성은 느끼나 그것이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교수-학습에 있어 시대적 조류 변화를 교수자가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개발과 연대를 위해 기존에는 고려치 않았던 부가적 시간의 할애가 교수자에게 얼마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무수히 많으나 어느 것이 교수—학습에 적절할 지를, 직접 써보지 않고서는, 가늠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또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도 어떠한 기능이 어학수업에 적합한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알 수 있다. 그러한 시행착오도 한두 개의 프로그램에 그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이 PowerPoint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녹화, 추출, 변환, 편집 등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그 이상이라는 점이 각 교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경험에 의한 사용결과를 각 교수자들끼리 공유하고 장단점을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 나아가 어학수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능의 습관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매뉴얼 성격의 참고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³⁾

그렇다면 왜 프리웨어일까? 우선 사용자 입장에서 보자. 첫째, 경제적이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기능은 마음에 드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접근 자체를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없고, 반대로,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 할까봐 시도를 꺼리는 경우도 없다. 둘째, 구하기 쉽다. 핵심어를 이용하여 검색하면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쉽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조작이 용이하다. 비용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종종 요구된 가격에 상응하도록 복합적인 기능을 탑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핵심기능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복합적인 기능이 많을수록 새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 부담감은 증가하는데, 프리웨어는 이와 같은 부담이 없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자체의 입장에서 보자. 첫째, 공인되었다. 물론 널리 쓰이는 프리웨어에 한한다. 경제적인 만큼 그 기능이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하거나 오히려 번거로움을 가중시킬 경우, 프리웨어는 언제든지 도태된다. 그만큼 ‘널리 쓰인다’는 다수 사용자들에 의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출시 후 쉽게 단종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 역시도 다수의 사용자를

3) 이옥주(2008:280)는 매체 개발과 관련한 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본고는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실천의 일환이다. (단체)교육을 목적으로 한 자료는 아닐지라도 본고는 필자 개인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매뉴얼 형식을 빌어 제공함으로써 매체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확보했을 경우에 한하겠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에 두고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수지타산에 의한 단종이나 서비스 중단의 예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한 만큼 광고를 확보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오류수정과 버전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장점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수요에 맞게 프리웨어를 적절하게 선택, 사용할 경우, 비록 그것이 원래 ‘언어교수—학습’을 목적에 둔 것이 아니었다라도, 중국어 교수—학습 설계와 실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본고는 다음의 구성을 따른다. 우선 프로그램 제시에 앞서, 교수설계의 정의와 대표적인 교수설계 모델을 소개하고 필자의 경험에 준해 교수설계 모델을 바탕으로 수정된 회화수업 모델을 설정한다. 그 다음으로 수정된 모델에 기반하여 각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웨어를 제시하고 각 장단점 및 사용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 내용을 정리하고 가치를 짚어본다.

2. 본론

2.1 교수설계: 무엇에 기반할 것인가

교수설계란 수업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교수방법을 처방해주는 조직적인 절차를 가리킨다(Reigeluth, 1983[한정선 외(2008:98)] 재인용). 교수체제설계, 교수개발, 교수체제개발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나 교수체제설계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교수설계와 개발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교수의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가 포함된 조직적인 절차’로서 정의되기도 한다(Seels & Richey, 1994[한정선 외(2008:98)] 재인용).

교수설계는 거시적 수준의 교수설계와 미시적 수준의 교수설계로 나뉘는데, ‘거시’는 국가나 사회의 교육체제와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학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교수체제를 개발하는 교수체제개발(Instructional Systems Design)을

가리키며 ‘미시’는 교수내용이 선정된 후의 단위 수업시간에서 특정 조건 하에 기대하는 학습자의 변화를 유도할 ‘최적의 교수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조규락 외, 2006:165~166). 그러나 단위수업이 사회의 교육 체제를 벗어나 시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수내용은 단위수업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거시와 미시의 구분을 별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거시가 미시를 포함한다는 포함관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조규락 외, 2006:166 참조), 이는 대표적인 교수설계 모형인 Dick & Carey 모형과 ADDIE 모형이,⁴⁾ 처방적이고 체제적인 접근을 토대로 거시와 미시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이지연, 2008:69 참조).

교수설계 모형은 교수체제의 이해를 도우면서 그것의 설계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등의 과정으로 기술한 것이다(이지연, 2008:69). 일반적으로는 ADDIE 모형, Dick & Carey 모형, ASSURE 모형 등이 있는데, Dick & Carey 모형은 교수과정의 체제를 중시한 모형이며 ADDIE 모형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모형이고 ASSURE 모형은 매체수업 설계에 있어 자주 이용되는 모형이다. 아래 각각의 모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Dick & Carey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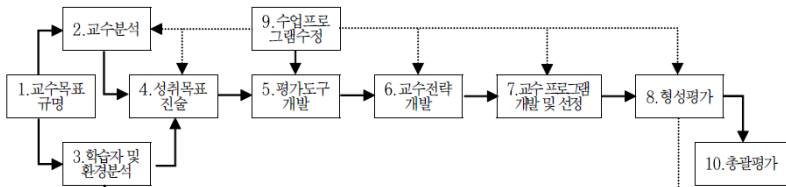


표1. Dick & Carey의 체제적 설계에 의한 교수 설계모형 (2009[김동식 외 역(2009:2~3)])

이와 같은 교수설계 모형은, 교수—학습에서의 각 구성요소, 즉 교사, 학습자, 학습자료, 교수 활동, 교수 매체, 학습 및 수행환경 등이 모두 중요하다고

4) 원래는 Walter Dick, Lou Carey, James O. Carey 등 세 명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두 명의 성이 동일한 관계로 흔히 Dick & Carey 모형이라고 부른다.

보고 성공적인 학습 결과 성취를 위해서는 교수—학습활동이 일련의 ‘체제’ 속에서 밀접하게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본다(Dick & Carey 2009[김동식 외 역(2009:3)]). 따라서 체제적 교수설계에서는 각 단계의 산출물이 다음 단계의 투입자료가 되어 처리되고 피드백을 통해 이를 보완, 수정함으로써 차후 교수활동에서 다시 기능하는, 순환적인 사이클을 그린다(한정선 외 2008: 98~99).

다음으로 ADDIE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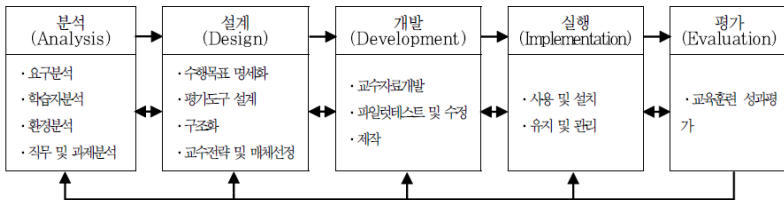


표2. ADDIE 모형(한정선 외 2008:124)

교수설계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애디(ADDIE)모형이라 부른다. 이들 다섯 단계는 교수설계에 있어 필수 구성과정일 뿐만 아니라 Dick & Carey 모형보다 간단명료하다는 점에서 교수설계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 사람 또는 일개 연구그룹에 의한 것이 아닌, 다수의 군중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기 때문에 필수 구성요소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역으로,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실제 설계에 있어서는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 변용될 필요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두 모형은 체제접근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각 단계별로 순차적 대응을 이룬다. Dick & Carey 모형의 ‘요구사정’, ‘수업분석’, ‘학습자 및 환경분석’은 ADDIE 모형의 ‘분석’과, ‘수행목표 진술’, ‘평가도구개발’, ‘교수전략개발’은 ‘설계’와, ‘수업자료 개발 및 선정’, ‘형성평가’, ‘수업 프로그램수정’은 ‘개발’과, 그리고 ‘총괄평가’는 ‘평가’와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다(이지연 2008:74). 이를 토대로 두 모형 간 대응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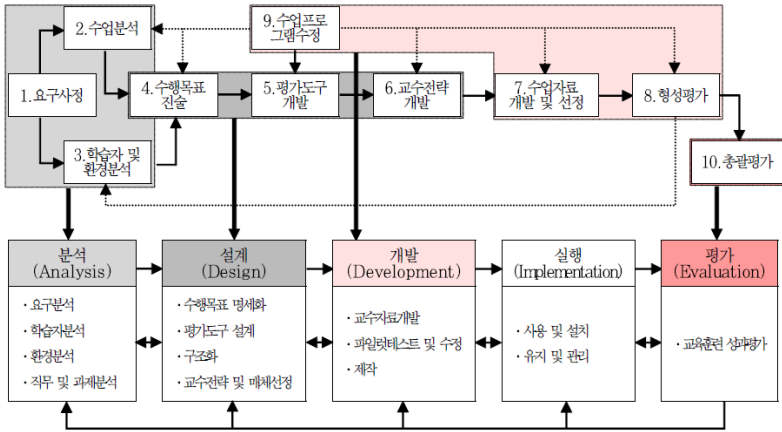


표3. Dick & Carey 모형과 ADDIE 모형 간 대응

위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Dick & Carey 모형에서 ‘실행’의 단계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그 모형이 체제를 좀 더 중요시하는 거시적 설계모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 가능하지만, 어학수업으로의 미시적 설계—최적의 교수방법 찾기—까지 고려해야하는 설계구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본고의 논의는 ADDIE 모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프리웨어는 ADDIE모형 전반에 걸쳐 이용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설계’ 단계의 ‘교수전략 및 매체선정’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절차의 일부 구성요소로서 ‘매체의 선정’을 고려 대상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구성요소들은 잠시 배제한 채 ‘매체의 선정’을 부각시켜, 매체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절차적 지침을 제시한 ASSURE 모형도 참고할 수 있다. ASSURE 모형은 다음과 같다.

A	S	S	U	R	E
Analyze Learner 학습자 분석	State Objectives 목표진술	Select Methods, Media and Materials 교수방법, 매체, 자료의 선정	Utilize Media and Materials 매체와 자료의 활용	Require Learner Participation 학습자 참여의 유도	Evaluate and Revise 평가와 수정

표4. 매체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절차적 지침: ASSURE 모형 (Smaldino 외, 2005[설양환 외(2005:60~62)역])

‘ASSURE’ 역시 ADDIE처럼 앞머리 글자의 조합이지만 그 흐름을 따른다면 성공적인 매체 수업을 ‘보장한다’는 일종의 암시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제시했던 것과 비슷하게, ASSURE 모형도 ADDIE 모형과 각 단계 별로 대응되는데, ASSURE 모형의 ‘학습자 분석’은 ADDIE 모형의 ‘분석’과, ‘목표진술’과 ‘교수방법, 매체, 자료의 선정’은 ‘설계’ 및 ‘개발’과, ‘매체와 자료의 활용’과 ‘학습자 참여의 유도’는 ‘실행’과, 끝으로 ‘평가와 수정’은 ‘평가’와 각각 대응된다. 종합하면, 멀티미디어를 교수매체로서 염두에 두고 교수설계를 진행할 경우에는 ASSURE 모형에 준하여 설계하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매체 이용의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ADDIE 모형을 참고하여 보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ADDIE 모형이든 ASSURE 모형이든 그 흐름 상 실제 수업과 맞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분석’ 단계인데, ‘분석’의 구성요소 중 ‘학습자 분석’, ‘요구분석’, ‘환경분석’ 등은 실제 현장에서 모두 학기가 시작되어서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론적,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학습자와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분석이 ‘목표진술’에 선행되어야 하지만, 방학이라는 쉼 없이 학기가 계속된다면 모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직전학기 지도했던 학생이라고 해도 방학동안의 학습량에 따라 준비도 간 차이가 존재하고 또 학년과 무관하게 수강하는 경우 학습자간 실력 차이도 천차만별일 수 있으며 수강정정 기간 동안 인적구성이 계속 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실제 수업에 있어 교수자는 개설과목명 상의 레벨에 준해 교재를 선택하고, 또 그에 따라 수행도달 목표와 교수방법, 매체 등을 임의적으로 선결정한 뒤 학기 시작과 함께 ‘분석’ 단계의 요소들을 체크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교수설계 흐름일 것이다. 이에 따라, 프리웨어 사용의 적절한 배치에 앞서 두 모형에도 일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수정할 경우 대략 다음과 같은 모형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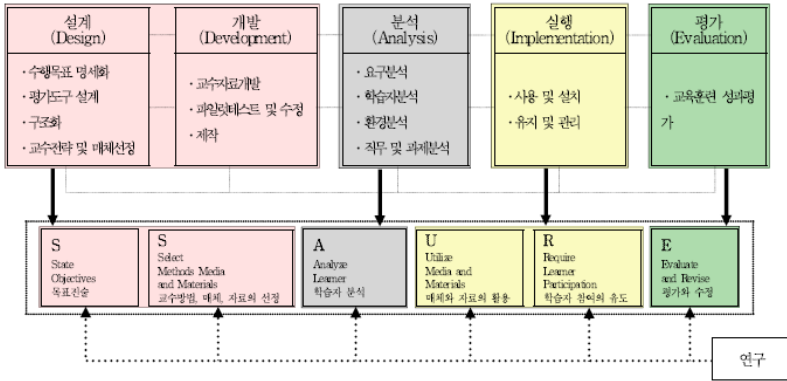


표5. 수정된 ADDIE 모형과 ASSURE 모형 간 대응 및 '연구'의 부가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교수자는 수업의 설계자이면서 동시에 학습의 조언자이고 또 연구자이기도 하다. 어학수업의 교수자에게 있어서는 교수자/학습자의 '언어사용' 자체도 연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수자의 언어행위는 수업에 부합하는가, 교수자의 시선처리와 동선, 제스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교수자의 비언어적 행위의 적절한 사용은 학습자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학습자는 주변환경과 대화상대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가,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학습자는 발화 시 해당 외국어 구사에 상응하는 시선과 제스처를 사용하는가, 유창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발화가 유창하지 않을 때 제2외국어 학습자는 무엇을 이용해 자신의 체면도 유지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는가 등이 그에 속한다. 이에 대한 문제들은 그동안 교수자들에게 홀시되었거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쉽게 범접하지 못했다. 제2언어교수—학습,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 동작학(Kinesics), 화용론(Pragmatics) 등을 가로지르는 융합적 시각과 실천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교수자의 교수태도, 학습자의 언어심리와 대화 시 즉각적인 순간 대응력 평가 등을 판단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모형은 '연구' 부분을 배제하고 설정되어 왔다. '연구'가 수업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으나 수업의 형식과 내용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면서 또 연구의 결과가 학습자

의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모형 설정에 ‘연구’를 편입시키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ASSURE 모형을 수정하여, ‘보장한다’는 의미가 소실되더라도, ‘S.S.A.U.R.E’ 순의 모형에 ‘연구’—Study Act and Utterance of Learner—부분을 편입시켜 ‘S.S.A.U.R.E.S’의 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적용시킬 수 있는 프리웨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2.2 프로그램: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성공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교수매체의 적절한 운용이 필수이다. 적절한 운용에 앞서 교수설계에 적합한 프리웨어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동일기능의 프리웨어들이 너무 많다는 점과 그것이 교수—학습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 어느 프리웨어가 교수설계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 원자료가 교수—학습 목적에 적합하도록, 즉 교수매체로서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가공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교수자의 능숙한 조작기술까지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 제시된 프리웨어에는 몇 가지 선별기준을 갖는다.

첫째, 입수의 용이성이다. 프리웨어의 장점은 웹상에서 쉽게 다룬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모든 프리웨어가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외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거나 외국 사이트에서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조작의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도 더러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입수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어판이 없거나 한국어 매뉴얼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되는 프리웨어는 주로 ‘네이버 자료실(<http://file.naver.com>)’에서 쉽게 입수 가능한 것에 한정하였고 그 외 프로그램들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페이지를 제시하였다. 둘째, 조작의 용이성이다. 기능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함 때문에 조작이 어렵다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또 운영체제 기반의 차이나 동일 운영체제 내의 버전 차이로 인해 충돌이 잦다면 조작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 제시되는 프로그램은, 비록 그것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특정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제시하고

Windows Vista와 Windows 7에서 큰 충돌 없이 무난하게 조작 가능한 것에 한정하였다. 셋째, 상호보완성이다. MovieMaker라고 하더라도 XP나 Vista 기반의 Windows MovieMaker는 음성과 영상 모두 편집이 가능하지만 7기반의 Windows Live MovieMaker는 영상편집에만 국한된다. 영상 편집에는 우리가 없으나 버전에 따라 음성편집에 있어서는 사용의 불편함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음성 편집에만 초점이 맞춰진 GoldWave를 이용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하다. 또 MovieMaker는 AVI(Audio Video Interleaved), WMV(Windows Media Video) 등의 친Windows 확장자를 가진 동영상 파일만 편집이 가능하다.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작물이므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웹에 탑재, 재생이 용이한 FLV(Flash Video) 파일은 편집이 불가한데, 이는 RealPlayer Trimmer로 편집함으로써 그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처럼 음성과 영상을 가공하는데 있어 특정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일부 미비점들을, 본고에서는 동일 기능의 상호 보완 가능한 제2의 프로그램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또 다른 프로그램을 새로 배워야 하는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이 같은 기준에 의해, ‘D.D.A.I.E.S’와 ‘S.S.A.U.R.E.S’의 각 단계별로 활용 가능한 프리웨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DDIE 모형 → D.D.A.I.E.S	ASSURE 모형 → S.S.A.U.R.E.S	프리웨어
설계(Design) 개발 (Development)	S State Objectives 목표진술	• 문서입력: Word Processor
	S Select Methods, Media and Materials 교수방법, 매체, 자료의 선정	• 매체가공: Goldwave, MovieMaker, RealPlayer • 매체형식변환: Show ⁵⁾ , Free AudioPack ⁶⁾ , DaumPot Encoder ⁷⁾
분석(Analysis)	A Analyze Learner 학습자 분석	• 니즈 및 준비도 분석: Google Office
실행 (Implementation)	U Utilize Media and Materials 매체와 자료의 활용	• 매체통합: MSPowerPoint(with Mind42), Prezi(with Mind42), Hiworks(for

		Blended)
	R Require Learner Participation 학습자 참여의 유도	•매체공유: Prezi, Web-Cafe, Blog •피드백: WaveSurfer, A/V Recorder
평가 (Evaluation)	E Evaluate and Revise 평가와 수정	•성취도 평가 및 강의평가: Google Office
	S Study Act and Utterance of Learner 학습자 발화와 행위 연구	•전사 및 분석: F4(with VLC MediaPlayer, JDK/JRE)

표6. 수정된 모형과 각 단계별 적용 가능한 프리웨어

‘S.S.A.U.R.E.S’에서 ‘목표진술’은 MSWord 또는 한글Word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업이 가능하다. ‘교수방법, 매체, 자료의 선정’ 단계에서는 매체를 가공하는 프로그램과 ‘매체통합’을 위해 가공결과를 재가공하는 파일형식 변환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매체가공’ 프로그램으로는 GoldWave, MovieMaker, RealPlayer가 있으며 ‘매체형식변환’ 프로그램으로는 Show, Free AudioPack, DaumPot Encoder가 있다.⁸⁾ ‘매체가공’을 하면서 이미 AVI나 FLV 파일이냐로 나뉘므로 형식변환 프로그램은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학습자분석’은 Google Office를 이용할 수 있다. 무기명 설문 의 방식을 이용하므로 ‘평가와 수정’ 단계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매체자료의 활용’과 ‘학습자 참여의 유도’에서는, 우선 ‘매체통합’ 도구로서 가장 보편적인 프레젠테이션 도구인 MSPowerPoint와 웹기반의 프레젠테이션 도구인 Prezi 그리고 PowerPoint 내용을 기반으로 On/Off-line 병행의 블렌디드 수업

- 5) <http://file.naver.com/pc/view.html?fnum=298742&cat=40>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동영상 변환프로그램으로는 Badak Encoder도 자주 쓰이며 다운로드 가능 주소는 <http://file.naver.com/pc/view.html?fnum=298742&cat=40> 이다.
- 6) <http://file.naver.com/pc/view.html?fnum=104637&cat=41>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7) <http://tvpot.daum.net/application/PotEncoder.do>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8) RealPlayer는 매체의 가공은 물론 웹 상의 동영상 수집 및 형식변환에도 이용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제3절을 참조하라.

(Blended Learning)을 가능하게 하는 Hiworks Recorder가 있다. 매체통합에 앞서 매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즉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웹기반의 Mindmap 구성을 도와주는 Mind42를 사용할 수 있다. ‘매체공유’ 도구는, Web을 통한 매체공유 도구로서 보편적으로 Web-Cafe나 Blog를 이용하지만, Prezi를 이용하여 공유할 수도 있다.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음성을 시각화 하여 보여주는 WaveSurfer가 있으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학습자 발화와 행위 연구’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서, 학습자의 참여 과정을 A/V Recorder로 저장해둘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습자 발화와 행위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대상이 교수자/학습자의 언어행위와 제스처이므로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전사가 가능한 F4가 있다. F4는 자연발화 전사를 주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무난한 영상구현을 위해서는 VLC MediaPlayer와 JDK(Java Development Kit)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

상기 프로그램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다. ‘가공’에서 교수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프로그램은 MovieMaker 일 것이며 GoldWave나 RealPlayer는 상대적으로 낯설 것이다. ‘분석’에서 Google은 그동안 메일 계정으로만 사용했지 그 외의 기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생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소개와 공유라는 본고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언급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낯선 프로그램들은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한다.

2.3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과 장단점 및 활용분야를 논의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은, 각 프로그램마다 갖고 있는 기능을 일일이 논할 수 없는 관계로 핵심적인 기능, 그 중에서도 어학수업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만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그 외,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는 경로 또는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두(또는 세) 프로그램 간에 우열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비교를 통해 수업설계에 도움이 되는 점들을 위

주로 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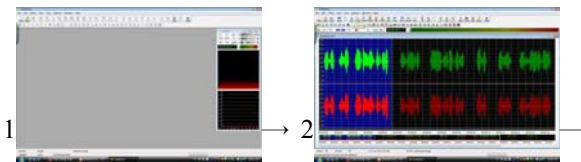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사용은 과정 면에서 간단하게 도식화했을 때 크게 세 단계로 분류가능하다. ‘열기 → 기능사용 → 저장/닫기’가 그것이다. 이 중 ‘기능’은 다시 ‘편집’과 ‘통합’, ‘입력’으로 나뉠 수 있는데, ‘입력’이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어학수업 설계상의 필수 기능은 ‘편집’과 ‘통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프로그램 사용 설명은 공통적으로 상기 과정을 따라 제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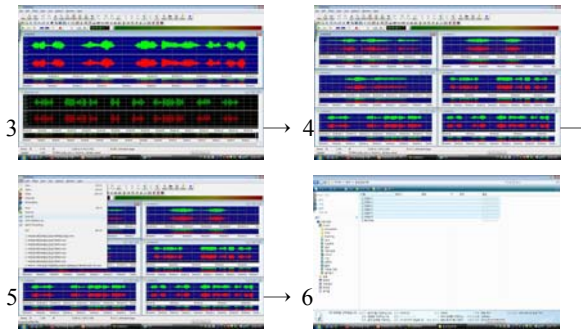
2.3.1 교수방법, 매체, 자료의 선정: GoldWave, MovieMaker, RealPlayer

2.3.1.1 GoldWave(<http://www.goldwave.com/release.php>)

GoldWave는 음악 및 음성 등의 사운드를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운드 혼합, 사이즈 변경, 노이즈 감소 등 여러 복합기능을 갖고 있지만, 어학수업을 위한 매체 가공에서 특히 유용한 점은 ‘광범위한 파일형식 지원과 변경’, ‘작업한 음성 조각의 일괄 저장’ 기능과 ‘CD 음성 추출(ripper)’ 기능에 있다.

일반 교재에 딸린 CD 상의 녹음내용을 보면 대부분 과 단위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CD 사용 시 단어, 문장, 회화별로 트랙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교수자는 매 과마다 몇 분 몇 초에 단어가 제시되고 회화 1, 2, 3 등이 제시되는지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GoldWave의 ‘자르기’와 ‘일괄저장’ 기능을 사용하면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해결가능하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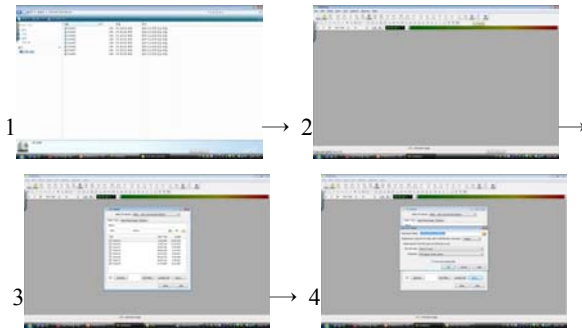
1. GoldWave를 실행한다. 좌측상단의 [Open]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불러온다.9)
2. 하나의 창이 큰 파형과 작은 파형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 작은 파형 부분을 자르기 원하는 만큼 드래그 한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전반 부분에 색이 변한다(원래는 파란색).
3. 좌측상단의 [Cut]→[P.New]를 클릭한다. 잘린 부분만 또 하나의 창으로 뜬다. 원하는 만큼 자르기를 반복 시도한다.
4. 하나의 파일을 위와 같은 과정으로 6등분한 결과 6개의 창으로 분할되었다.
5. [File]의 [Save all]을 클릭하여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저장결과는 6번 그림과 같다.

Windows Vista 체제에서 운용되는 MovieMaker에서도 음성 편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파일지원의 폭이 좁고 저장 면에서도 ‘자르기1→저장1’, ‘자르기2→저장2’, ‘자르기3→저장3’... 과정을 구간마다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GoldWave에서는 파일지원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자르기1, 자르기2, 자르기3...→저장’처럼 여러 번 자른 결과물을 한 번의 [Save all] 클릭으로 저장이 가능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파일명에 일련번호를 매기기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GoldWave의 또 다른 유용한 기능으로 ‘추출’이 있다. CD의 녹음내용 가공은, CD 상의 내용물을 우선 컴퓨터 하드에 옮겨 놓고 하면 편리하다. 하지

9) 프로그램 조작과정 소개에서의 각 괄호([])는 ‘아이콘’ 또는 ‘실행버튼’을 의미한다.

만 CD 내용은 재생되면서도 해당 폴더에 들어가면 1KB, 4KB 등 터무니없이 작은 용량의 파일만 보게 될 때가 있다. 이 경우 GoldWave의 ‘추출’기능을 이용하면 CD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녹음 내용만 쉽게 얻어 수업에 이용할 수 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CD 내 파일용량이 1KB, 4KB 등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2. 우측상단의 [CDX]를 클릭한다.
3. CD Reader 창이 뜨면 해당 파일을 불러온다. 1KB, 4KB 등이었던 파일이 Track명, 시작시간(Start Time), 길이(Length) 등으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4. 창 우측 하단의 [Save]를 클릭한다. 경로(Destination folder)를 지정하여 저장하고 파일을 확인한다.

그 외 음성파일의 확장자명 변환도 가능한데, GoldWave 기본 창에서 [File]→[Batch processing]→[Add files] 클릭으로 파일선택→[Save as type] 클릭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확장자명 선택→[Begin] 클릭으로 저장'의 과정을 따르면 된다.

2.3.1.2 MovieMaker(<http://www.microsoft.com/downloads/ko-kr/details.aspx?displaylang=ko&FamilyID=d6ba5972-328e-4df7-8f9d-068fc0f80cfc#SystemRequirements>)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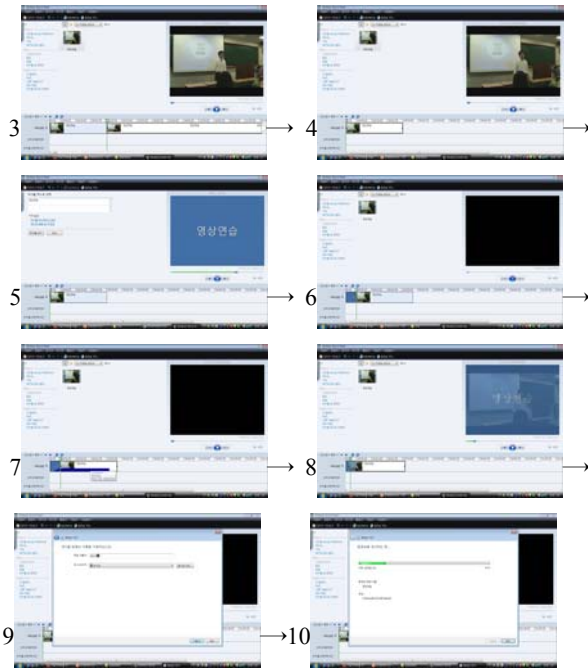
10) 이 주소는 Windows Vista에서 구동되는 Windows MovieMaker 2.6을 다운로드

MovieMaker는 음성과 영상을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다. TV 영상물은 보통 1시간 내의 분량이 많고 영화영상물은 2시간 내외의 분량이 많다. 그런데 수업에서 이들 영상물을 공유하고자 할 경우, 영상물 시간이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해 수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영상물마다 필요한 부분의 시간대를 일일이 외우는 것도 번거롭지만 시간대를 알고 ‘빨리넘기기’를 해도 컴퓨터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종종 영상물이 멈추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것을 통째로 PowerPoint 파일에 탑재하는 것은 용량 면에서 더욱 무리이다. 때문에 교수자가 수업목적에 맞게 해당분량만 편집할 필요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동영상편집 프로그램이다.¹¹⁾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Windows 운영체제에 적합하고 조작성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MovieMaker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Windows Vista기반의 Windows MovieMaker 2.6을 바탕으로 상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동영상 편집의 핵심기능인 ‘분할’과 ‘통합’ 그리고 ‘타이틀 넣기’에 초점을 맞춰 논하고자 한다. 과정은 아래와 같다.



- 드 받을 수 있는 주소이다. Windows7에서 구동되는 Windows Live MovieMaker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explore.live.com/windows-live-movie-maker>이다.
- 11) 음성을 편집한다는 면에서는 GoldWave와 기능이 중복되지만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지원되는 파일형식의 범위와 저장방법 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MovieMaker는 또, Vista체제와 7체제에서의 버전과 기능이 상이한데, Vista체제에서는 Windows MovieMaker 2.6을, 7체제에서는 Windows Live MovieMaker를 사용한다. ‘2.6’에서는 음성 편집과 영상 편집이 독립적으로 가능한데 반해 ‘Live’는 영상 편집 위주이며 음성 편집은 영상에 부가된 음성을 편집할 때만 가능하다. 대신 ‘Live’에는 자막 삽입 기능이 추가되어 영상번역 수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MovieMaker를 음성, 영상 편집도구로 보기 보다는 영상 편집 도구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분할>

1. MovieMaker를 실행한다. 좌측 [작업]열의 [가져오기]→[비디오]를 클릭하여 해당 동영상을 불러온다.
2. 동영상을 화면 아래 시간막대의 '비디오'란에 끌어다 놓고 플레이시킨다.
3. 시간선이 영상의 필요지점에 근접하면 동영상을 정지시킨 뒤, 영상화면의 우측 하단(비디오 시간막대의 우측 상단)의 [분할]을 클릭한다. 영상이 두 개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필요없는 부분(그림에서는 뒷부분)을 클릭한 뒤 Ctrl+X를 눌러 삭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부분만 잘라 모아놓는다.

<타이틀 넣기>

5. 좌측 [작업]열의 [편집]→[타이틀 및 제작진]을 클릭한다. [맨 앞부분에 타이틀]→[타이틀 텍스트 입력]을 클릭하여 공간에 원하는 타이틀을 입력한다. 입력 후 바로 아래 [타이틀 애니메이션 변경]을 클릭하여 타이틀 제시효과를 선택한다. 그 다음 다시 바로 아래 [텍스트 글꼴 및 색 변경]을

클릭하여 원하는 글꼴과 색을 변경한다. 작업을 마치면 [타이틀 추가]를 클릭한다.

6. ‘타이틀’→‘동영상’ 순으로, 동영상 앞에 타이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동영상을 클릭하여 타이틀 영역으로 밀어 넣는다. 밀어 넣을 때 출현하는 아랫부분의 파란색 띠로써 어느 부분까지 두 영역이 중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8. [플레이]를 누르면 ‘타이틀’→‘타이틀-동영상’→‘동영상’ 순으로 영상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합 및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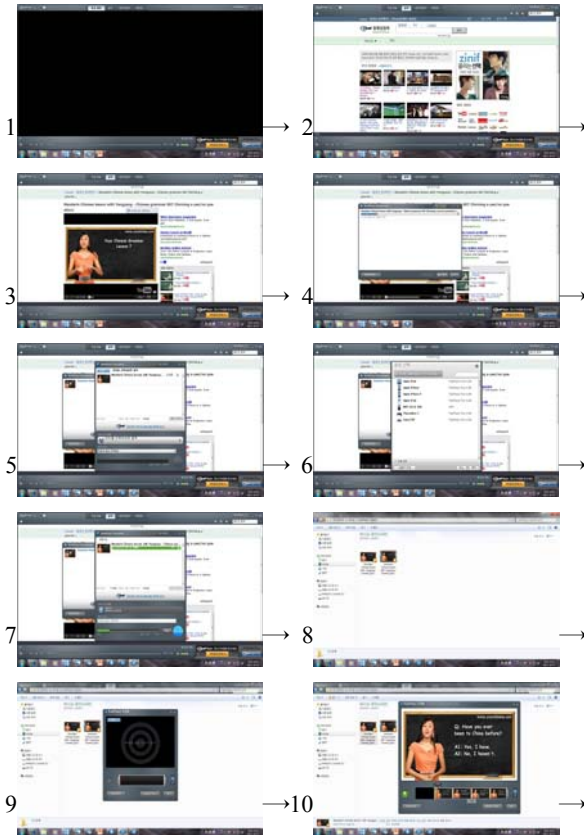
9. [플레이]→[분할]→[(불필요 부분)삭제] 과정을 통해 원하는 만큼의 동영상을 모으고 타이틀을 더한 뒤, 좌측 [작업]열의 [다음에 게시]→[이 컴퓨터]를 클릭한다.
10. ‘파일이름’과 ‘게시 위치’를 지정한 뒤 [다음]을 클릭하고 [내 컴퓨터에서 최고 품질로 재생(권장)]→[게시]를 클릭하면 타이틀과 더불어 편집된 부분만 통합 저장된다.

MovieMaker는, 태생적으로, AVI, WMV 등의 친Windows 확장자만 편집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는 FLV 등 Flash 동영상 확장자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RealPlayer Trimmer로 보완가능하다. 다음으로 RealPlayer에 대해 살펴보자.

2.3.1.3 RealPlayer(<http://kr.real.com/>)

RealPlayer는 줄곧 음성 및 영상 플레이어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금은 동영상수집 및 편집, 파일 확장자 변환 및 플레이까지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매체 가공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자 할 때, 근래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프레젠테이션 도구에 직접 링크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웹상의 자료 대부분이 업로드의 한계상 분량이 길지가 않아 따로 가공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 파일 용량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웹상에서 직접 전 체보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결정적으로 인터

넷 환경이 허용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수업목적에도 부합하고 분량 상 어디 하나 가공할 필요도 없는데 인터넷 환경을 미리 점검해야 하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동영상 캡처라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RealPlayer의 ‘동영상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아래에는 RealPlayer의 ‘웹 동영상 다운로드’, ‘동영상 형식변환 및 편집’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¹²⁾




12) RealPlayer를 설치하면 ‘Real’이라는 폴더에 세 개—‘RealPlayer Converter’, ‘RealPlayer 트리머’, ‘RealPlayer’—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설치된다.



11

<웹상의 동영상 다운로드>

1. RealPlayer를 실행시킨다. 창 위의 [검색]을 클릭한다.
2. ‘동영상 검색’ 창이 나오면 핵심어 검색을 통해 원하는 동영상을 찾는다.
3. 동영상 화면에 마우스를 올려 화면 우측 상단에 ‘ 이 비디오 다운로드’가 표시되면 클릭한다.
4. RealPlayer Downloader가 실행되면서 웹상의 동영상이 다운로드된다 (다운로드된 파일은 모두 FLV 형식이다). 다운로드를 마치면 [모두 변환]을 클릭한다.

<동영상 형식변환>

5. RealPlayer Converter를 실행한 뒤 중간에 위치한 [장치를 선택하려면 클릭]을 클릭한다.
6. [최근에 사용한 파일/인기 있는 파일]→[전체 표시]→[비디오 형식]→[WMV]를 클릭한다.
7. [시작]을 누르면 파일형식이 FLV에서 WMV로 변환된다.
8. ‘내비디오’—‘RealPlayer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된 파일(FLV)과 변환된 파일(WMV)을 확인한다.

<동영상 편집>

9. Windows 바탕화면의 ‘시작’—‘모든 프로그램’—‘Real’—‘RealPlayer 트리머’ 순으로 클릭하여 ‘트리머’를 실행시킨다.
10. 트리머 창에 파일(FLV)을 끌어 놓는다. 중간에 건전지 모양의 시간막대창이 뜨면 왼쪽 +극 모양의 막대를 오른쪽으로 끌어와 영상의 시작 지점을 지정하고 오른쪽 +극 모양의 막대를 왼쪽으로 끌어와 영상의 종료지점을 지정한다. [잘라내기 저장]을 클릭한다.
11. ‘RealPlayer 다운로드’ 폴더에 가공된 파일(FLV)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ovieMaker는 확보한 동영상만을 가공할 수 있지만 RealPlayer는 가공은 물론 동영상 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변환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MovieMaker와도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에서 매체 수업을 위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3.2 학습자 분석, 평가와 수정: Google Office

2.3.2.1 Google Office(<https://docs.google.com>)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을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아진다. <초급중국어회화>수업이라고 해도 1학년부터 4학년, 심지어는 중국 유학생까지 다 들을 수 있고, 또 학과차원에서 1학년 수업과 1학년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나눈다 해도 다시 그 안에서 선행학습의 유무, 중국경험의 유무 등으로 준비도 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교양과정의 회화수업인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이와 같은 경우,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선행학습 유무, 중국경험의 유무, 학습과 경험의 기간, 학습자별 수강 목적과 흥미도, 수업 및 교수자에 대한 바람 등 니즈(needs)와 준비도 등을 미리 체크한다면 수업 진도와 난이도 조정 및 애초의 수업설계 수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이다. 면담으로써 파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모되고 설문으로 파악하기에는 배포에서 수합, 통계까지 신경써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같은 문제는 Google Office를 사용함으로써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Google Office는 Google 사이트 상의 ‘문서도구’로서 그 결과물을 MS Word, PowerPoint, Excel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웹상의 문서작업도구이다. Google Office는 여기에 다시 ‘양식’이라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는 웹 기능을 활용한 설문의 ‘실시간 발송—실시간 취합—실시간 통계’를 진행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본고에서도 Google Office의 ‘양식’ 기능에 초점을 맞춰 활용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Google 웹메일(<http://mail.google.com>)에 접속한다. 계정을 통해 로그인한다. 검색창 상단의 [문서도구]를 클릭한다.
2. 문서도구 창이 뜨면 좌측상단의 [만들기]→[양식]을 클릭한다.
3. 양식 창이 뜨면 [양식-제목없음]란에 ‘원활한 수업을 위한 설문’과 같이 설문의 제목을 기입한다. 그 아래 [사용자가 해당 양식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 또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란에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설문입니다’ 등의 설명을 기입한다. [질문 제목]란에는 ‘선행 학습 유무’처럼 묻고자 하는 요지를 적는다. [도움말 텍스트]에는 ‘본 수업을 수강하기 전 선행학습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과 같은 본질문을

기입한다. [질문 유형]→[선택형질문]을 선택한다. 바로 아래 ‘옵션 1개’란에 ‘있다’를 기입하고 그 아래 ‘옵션을 추가하려면 클릭’을 클릭하여 ‘옵션 2개’란에 ‘없다’를 기입한다. 단답형 또는 서술형 회신을 원한다면 [질문 유형]→[텍스트]를 선택한다. 아래 하얀 공간 우측에 마우스를 대면 ‘  

4. 같은 형식으로 원하는 만큼의 문항을 작성한다.
5. 문항 작성을 마쳤으면 맨 아래 [완료]를 클릭한다. 그런 다음, 창의 우측 최상단의 [저장]을 클릭한다.
6. [저장]과 같은 열에 있는 [이메일로 양식 보내기]를 클릭한다. ‘다른 사람에게 양식 보내기’ 창이 뜨면 ‘받는 사람’란에 피설문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를 넣는다. 만약 ‘이메일에 양식 첨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제한다. [보내기]를 클릭한다.¹³⁾

<피설문자>

7. 도착한 메일 제목은 설문양식의 제목(‘원활한 수업을 위한 설문’)과 같다. 메일을 열면 설명(‘익명으로 진행되는 설문입니다’)과 함께 설문 양식이 링크된 주소가 쓰여 있다. 클릭하면 설문양식 페이지로 넘어간다.
8. 설문지 양식을 메운다. [보내기]를 클릭한다.

<설문시행자>

9. 설문양식을 발송하면 Google 계정에는 ‘작성한 양식(원활한 수업을 위한 설문)입니다’란 메일이 도착한다. 메일을 열면 [답글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다음 __명에게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에게 양식을 보내야 할 경우, 다음으로 이동해 보세요]로 각각 링크된 주소가 있다. 그 중 첫 번째, [답글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자동으로 완성됩니다]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한다.
10. Excel의 스프레드 시트 형식에 설문 유형별 대답 내용이 실시간(도착한 시간도 명기된다)으로 취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시트 상단의 [양식(__개)]→[응답 요약보기]를 클릭한다.

13) 이메일로 설문지가 발송된다는 점 때문에 설문에 응하는 학습자들은 결과가 ‘익명’으로 취합된다는데 의심을 품곤 한다. 그러므로 양식 작성 시 [사용자가 해당 양식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 또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란에 충실한 대답이 피드백될 수 있도록 익명진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12. 실시간으로 취합된 피드백 결과의 통계 진행 결과를 볼 수 있다. 원그래프, 막대그래프 등 통계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견조사—취합—통계’ 도구는 비단 ‘학습자 분석’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상기 프로그램은, 수업의 구체적인 특성까지 고려할 수 없는 제도적 강의평가와는 별개로, 교수자 개인의 (수업설계 상의) ‘평가와 수정’ 단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즉 수업의 특성을 반영한 설문으로, 자신의 강의에 대해 피드백 받고 싶은 점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חק기 강의에 적용함으로써 교수설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오픈북 시험이 허용되는 수업의 경우, 교수자 및 수업 평가가 아닌, 학습자 평가 및 피드백의 도구로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2.3.3 매체와 자료의 활용, 학습자 참여의 유도:

MSPowerPoint(With Mind42), Prezi(With Mind42), Hiworks Recorder, WaveSurfer

프레젠테이션 도구의 가장 큰 장점은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와 음성, 영상 및 링크 등을 하나의 매체로 통합하는 하이퍼 미디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¹⁴⁾ 빔 프로젝터를 사용했다라도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음성은 음성대로 또 영상은 영상대로 각기 조작을 해야 했던 과거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현재는 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매체를 집결시킨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만큼 교수매체 전환으로 인한 끊김 없이 원활한 매체수업이 가능해졌다. 이제 통합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방법의 문제가 뒤이어 제기된다. 똑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단위 수업의 어느 때 제시할 것인가, 무엇으로(어떤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제시할 것인가, 어떤 효과를 넣어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수자의 정보전달 능력, 교수매체의 전달효과,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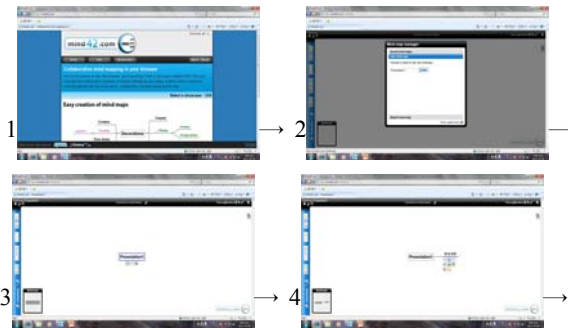
14) ‘하이퍼 미디어’란 단일 컴퓨터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지화상, 애니메이션, 소리, 동영상과 같은 매체를 통합하여 실시간에 비선형적으로 구현하는 하이퍼텍스트 시스템 또는 그 응용을 말한다.(이충현 200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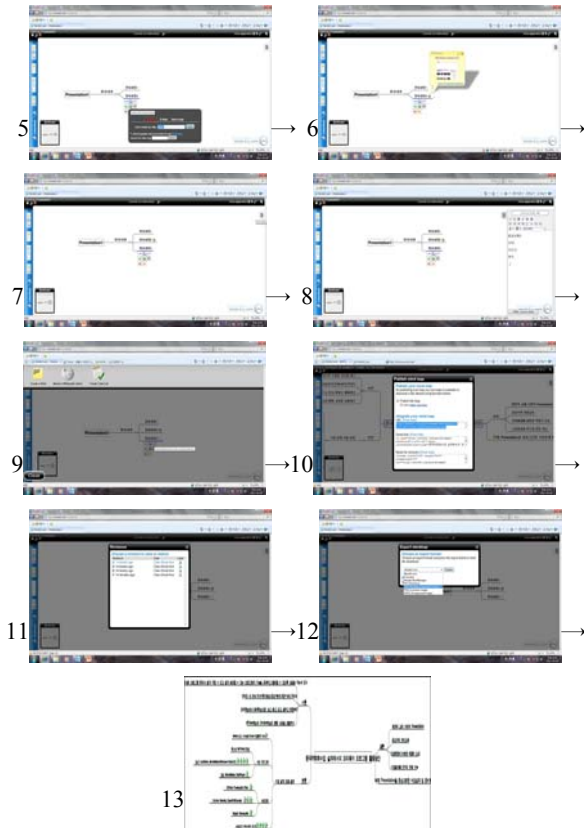
본 절은 이와 관련하여, 앞서 과정을 통해 가공한 자료를 교수—학습 활동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참여 유도까지 이끌어내려면 무엇보다 시작하고 어느 저작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논의이다.

2.3.3.1 Mind42(<http://www.mind42.com/>)

통합의 방법 문제는, 프레젠테이션 준비 작업에 앞서, 학습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학습목표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결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밑받침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사고에서부터 가공된 자료의 전후 배치가 뒤따른다.

이러한 생각과 배치는 가공된 자료만 갖고 무턱대고 PowerPoint를 실행시켰다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공된 매체와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선정’과 ‘활용’ 중간에 ‘구상’이라는 하위 연결 단계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수업 진행 구상과 정교한 매체 및 자료의 제시를 위해서 교수자 나름의 마인드맵(mindmap)이 필요한데 Mind42가 그것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Mind42가 갖는 장점은 조작이 용이해 부가 기능사용에 의한 사고흐름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과 아이디어와 관련한 메모, 문서, 정보검색, 사이트 등을 링크해 둘 수 있어 생각을 정리하고 추후 재정립하는데 편리하다는 점이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Mind42 웹페이지에서 계정을 만들어 로그인한다.
2. Mind map manager 창이 뜨면 [New mind map]에서 제목을 입력한 뒤 [Create]를 클릭한다.
3. 제목 하단에 있는 '→'에서 화살표를 클릭한다. '→'는 노드(node)를 생성시키는 아이콘이다.
4. 생성된 노드에서 '→'를 클릭하여 '수직적' 가지치기를 한 뒤 'new node'자리에 하위 범주의 내용을 쓰고, 다시 '←'를 클릭하여 '수평적' 가지치기를 한 뒤 역시 'new node'자리에 병렬 범주의 내용을 쓴다.
5. 주제와 연관된 사이트를 링크시키려면 '🌐'를 클릭한다. URL 입력 창

이 뜨면 주소를 입력한다.

6. 링크된 사이트는 제목 옆에 ‘🌐’로 표시되며 클릭하면 관련 사이트에 직접 연결된다.
7. 한 줄로 끝낼 수 없는 아이디어는 우측 상단의 [Text editor]를 클릭하여 기록한다.
8. 입력을 마치면 ‘📄’과 같은 문서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되며 클릭하면 우측에 원문이 출현한다.
9. ‘📌’을 클릭하면 [Create a note], [Attach a Wikipedia article], [Create Todo-List]가 제시된 창이 내려온다. 메모지를 붙일 수 있고 문건 검색을 할 수도 있으며 업무 체크 리스트도 작성하여 링크시킬 수 있다.
10. 작성한 mindmap을 공유하려면 좌측 상단의 ‘🔗’을 클릭한다. ‘URL’란과 ‘Direct link’란의 주소를 복사하여 새 창에 붙이면 작성한 결과물을 볼 수 있으며 메일 내용에 덧붙여 발송하면 링크된 주소를 통해 프로젝트도 가능하다.
11. 작업의 변화과정을 확인하려면 좌측 상단의 ‘🕒’을 클릭한다. ‘Revisions’ 창이 뜨며 그동안 자동 저장되었던 기록을 볼 수 있어 구상의 변화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12. 좌측 아이콘 바 상의 ‘📄’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그리고 그 아래 ‘📄’를 클릭하면 다른 매체 형식(PDF, JPEG 등)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13. PDF 형식으로 저장한 mind map 결과물이다.

2.3.3.2 MSPowerPoint와 Prezi(<http://prezi.com/>)

PowerPoint는, 프레젠테이션을 PowerPoint의 준말인 ‘PPT’와 동일시할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텍스트와 음성, 영상, 타매체 간 하이퍼링크가 가능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를 독립적으로 또는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학의 매체수업 도구로서 각광을 받아왔다. 오프라인 기반의 PowerPoint와는 달리 Prezi는 웹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도구이다. 음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편하나 영상의 탑재, 웹자료 링크 등은, 웹 기반의 이점을 살려 상대적으로 편리하며 다 제작된 결과물은 다운로드 받아 오프라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단, 수정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PowerPoint의 가장 큰 장점은, Windows를 기반으로

한 가공 매체들의 통합 능력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Prezi의 가장 큰 장점은 웹을 기반으로 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손쉬운 공유 및 확대와 축소 기능을 통한 가시성 확보능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는 음성, 영상, 링크, 활용 등 교수매체 통합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춰 두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소개,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PowerPoint를 이용한 음성, 영상 통합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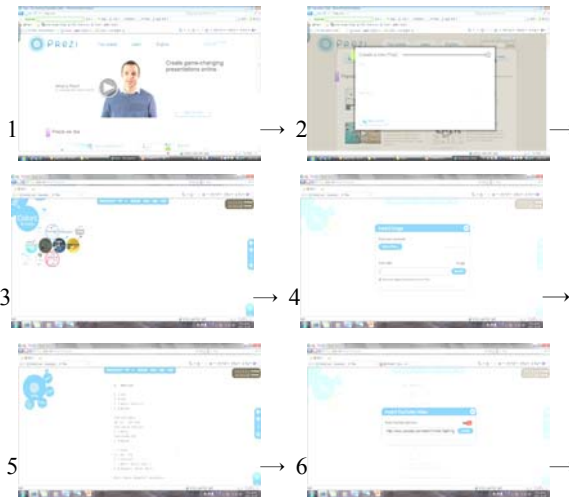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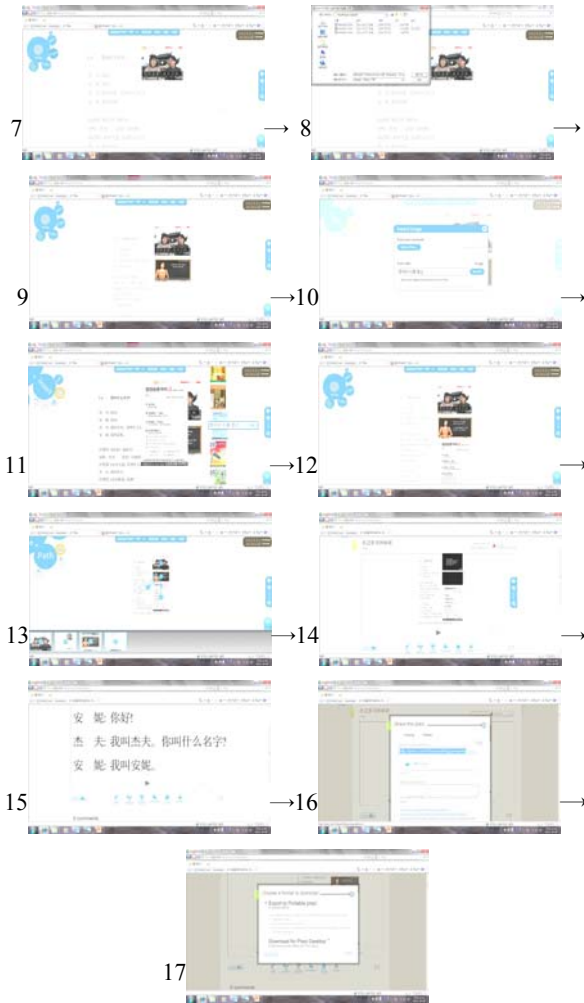
1. PowerPoint를 실행시켜 음성, 영상을 탑재할 문서를 연다.
 <음성 탑재>
 2. [삽입]→[오디오]→[오디오 파일]을 클릭한다.
 3. ‘오디오 파일’ 창에서 해당 음성파일을 찾아 [삽입]을 클릭한다.
 4. ‘’아이콘이 출현하면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시킨다. [슬라이드 쇼]를 실행시켜 확인한다.¹⁵⁾
- <영상 탑재>
 5. [삽입]→[비디오]→[비디오 파일]을 클릭한다.
 6. ‘비디오 파일’ 창에서 해당 영상파일을 찾아 [삽입]을 클릭한다.
 7. 영상파일이 탑재되면 크기를 조정하여 위치시킨다. [슬라이드 쇼]를 실행시켜 확인한다.
- <하이퍼링크>
 8. [삽입]→[도형]→[실행단추]를 클릭하여 ‘+’가 출현하면 해당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도형을 그린다.
 9. 그린 것과 동시에 ‘실행설정’ 창이 출현한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하이퍼 링크]→[다른 파일]을 클릭한다.
 10. ‘다른 파일 하이퍼링크’ 창이 뜨면 해당 음성/영상 파일을 찾아 [확인]을 클릭한다.
 11. [슬라이드 쇼]→[현재슬라이드부터]를 클릭하여 슬라이드쇼를 실행시킨다.
 12. 실행단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음성/영상 플레이어가 실행되면서 링크된 음성/영상이 플레이된다.

이와 같이 PowerPoint는 음성, 영상, 기타 매체와의 링크가 용이하고 Word, Excel 상의 작업결과물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그러

15) MS Office 2010부터는 슬라이드 쇼를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나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페이지 한 면에 들어간 텍스트량이 많을 경우 큰 화면에 프로젝터로 공유한다고 해도 가시성, 가독성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 경우 두세 페이지로 분할하여 배치할 수 있지만 매 페이지마다 음성, 영상, 링크 등을 재탐재해야 하고 또 해당 페이지에 맞게 음성, 영상 등을 재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둘째, 수업자료 공유에 한계가 있다. PowerPoint 결과물을 ‘유인물’용으로 출력하여 나눠주면 텍스트 내용과 그 흐름을 공유할 수 있지만 수업 시의 음성, 영상 및 애니메이션 기능 등은 공유할 수 없다. 이 경우, 학습자들에게 교수자의 PowerPoint 파일을 나눠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음성/영상까지 함께 배포할 수밖에 없어 저작권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또 교수자의 파일을 재가공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블렌디드 수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2.3.3.3 절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웹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도구인 Prezi에서의 영상 및 자료 탑재를 소개한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Prezi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계정을 만든다.16)

16) Prezi는 크게 ‘일반가입자’와 ‘학생/선생님 가입자(Student/Teacher Licenses)’로 분류된다. 일반가입자는 100MB까지만 무료인데 반해 학생/선생님 가입자는 500MB까지 무료이다. ‘학생/선생님 가입’은 메일계정으로 인증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ac.kr’계정을 갖고 있다면 쉽게 인증이 가능하다. ‘학생/선생님 가입’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Prezi 사이트를 접속한다; 2) 우측 상단의 [Sign up]→

2. [Your Prezis]→[New prezis]를 클릭한다. ‘Create a new Prezi’ 창이 뜨면 [Title]과 [Description]란을 입력한다.
3. Prezi 작업 창으로 들어간다. 좌측 상단의 [Write]→[Colors & Fonts] →[한글 대한민국]을 클릭한다.¹⁷⁾
4. [Write]→[Insert]→[Image]를 클릭하면 ‘Insert image’ 창이 뜬다. [Select files]를 클릭한다.
5. ‘prezi.com에서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 창에서 이미 준비한 텍스트 파일(PDF 형식)을 선택하여 삽입한다.
6. [Write]→[Youtube]를 클릭하면 ‘Insert Youtube video’ 창이 뜬다. Youtube 사이트에서 삽입하고자 하는 영상을 검색하여 주소를 복사한 뒤 ‘Paste Youtube link here’ 창에 붙여 넣고 [insert]를 클릭한다.
7. 삽입된 Youtube 동영상의 화면크기를 조정하고 위치시킨다.
8. [Write]→[Insert]→[File]을 클릭하면 ‘prezi.com에서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 창이 뜬다. 상기 RealPlayer로 가공한 파일(2.3.1.3절 참조)을 선택하여 삽입한다.
9. 삽입된 동영상의 화면크기를 조정하고 위치시킨다.
10. [Write]→[Insert]→[Image]를 클릭하면 ‘Insert image’ 창이 뜬다. ‘From web’란에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어를 입력한 뒤 [Search]를 클릭한다.
11. Google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된 이미지 자료들 중 원하는 이미지를 두 번 클릭으로 선택한다.
12. 삽입된 동영상의 화면크기를 조정하고 위치시킨다.
13. [Write]→[Path]→[1-2-3 Add]를 클릭한 뒤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클릭한다. 개체 위에 ①, ②, ③ 등의 숫자가 매겨진다.

[Sign up now]를 클릭한다; 3) 라이선스 화면이 뜨면 노란색 ‘Student/Teacher Licenses’ 창의 [Go]를 클릭한다; 4) ‘Student/Teacher Verification’ 창이 뜨면 학교 메일 계정을 입력한 뒤 학교 메일을 확인한다. 인증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통해 Prezi를 접속한 뒤 ‘Registration’란을 기입하면 가입 완료된다.

- 17) Prezi에서 작업할 때 주의할 점은, 하나의 작업과정에서 여러 폰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업에 필요한 텍스트를 입력하고자 할 경우, 기타 워드 프로세서에서 텍스트 작업을 마친 뒤 PDF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여 삽입해야 한다.

14.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Exit]를 클릭한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나오면 ‘▶’를 클릭하면서 순서대로 내용이 제시되는지 확인한다. ‘▶’ 옆에 [more]→[Fullscreen]을 누르면 전체 보기가 가능하다.
15. 프레젠테이션 화면 창에 마우스(휠마우스)를 대고 휠을 상하로 움직여 본다. 자유자재로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다.
16. 웹 사이트 좌측 하단의 ‘Share ’를 클릭하면 ‘Share this prezi’ 창이 뜬다.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두 가지이다. 1) [Viewing]의 ‘Sent link to share this prezi’란의 주소를 복사하여 메일 내용에 붙여 넣으면 메일 수신인은 링크된 주소를 통해 작업 결과물 전체를 볼 수 있다. 2) ‘’를 클릭하여 ‘To’란에 수신인 메일 주소를, ‘Add a personal note.’란에 부가 내용을 적어 보내면 수신인은 1)과 같은 방법으로 결과물 공유가 가능하다.
17. 프레젠테이션 시 온라인 환경이 받쳐 주지 않는 경우, 프레젠테이션 화면 아래 [Download]를 클릭한다. ‘Choose a format to download’의 [Export to Portable prezi to present offline]을 클릭한다. 결과물을 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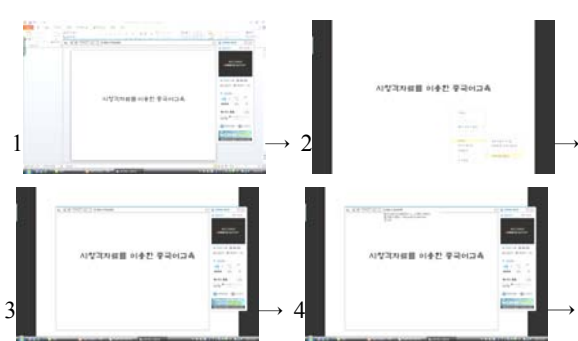
Prezi는 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또 다른 창을 띄우지 않고도 웹상의 동영상 및 이미지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탑재를 위해 준비한 동영상 파일 (AVI, FLV) 및 PDF 파일 등의 삽입도 가능하다는 점, 무엇보다도 매 결과물마다 배당된 웹주소를 통해, 인터넷 환경이 보장된 장소에서는 교수자의 수업 자료를 학습자와 언제든지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멀티미디어 매체수업 도구로서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그와 같은 점에서, 기존 웹카페의 대안으로서 학습자들과 온라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장으로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면대면 수업의 프레젠테이션 도중 마우스 조작 하나로 텍스트의 확대축소가 가능하다는 점은 가시성, 가독성 확보에 매우 효과적이다.(15번 그림 참조) 그러나 한국어, 중국어, 한어병음 등 외국어 텍스트 입력에 필요한 폰트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과 음성을 입력하려면 음성화일을 동영상화일로 바꿔주어야 삽입가능하다는 점, 내용 수정은 웹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우세하므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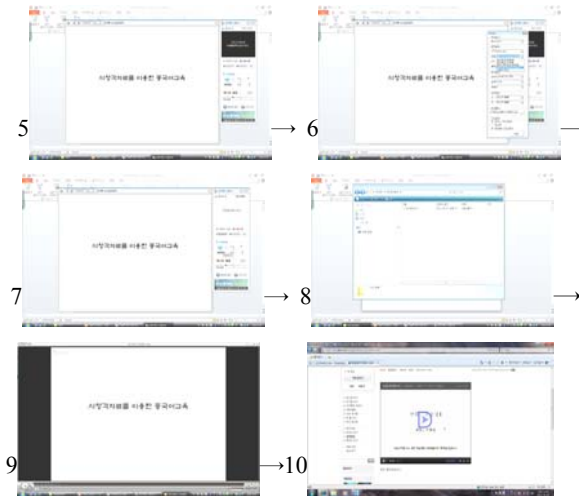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2.3.3.3 Hiworks Recorder(<http://www.hiworks.co.kr/down/hiworksrecorder>)

앞서 2.3.3.1에서 PowerPoint의 교수자료 ‘공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와 같은 문제를 보완해 주고 나아가 Blended Learning을 시도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도구로서 Hiworks가 있다. Hiworks는 원래 캡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리웨어이다. 웹상에서 수업에 맞는 동영상상을 발견했을 경우, RealPlayer를 이용한 것과 같은 다운로드가 아니면 흔히 동영상 캡처를 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동영상 캡처를 하려면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Hiworks는 캡처 후에도 상당한 정도의 화질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캡처 도구로서 매우 우수하다. Hiworks는 여기서 더 나아가 손쉬운 e-Learning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Blended Learning은 동일 과목을 On/Off-line으로 병행하는 수업을 일컫는다. 면대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Off-line 강의내용과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On-line수업의 장점을 혼합한 수업의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1주일 3시수인 회화수업 시간을 고려할 때, Blended Learning의 적절한 운용은 수업자료의 공유는 물론 현실적으로 부족한 회화수업 시간을 조금이나마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용 PowerPoint 수업자료를 실행시킨다. 그런 뒤 Hiworks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동시에 강의자 음성을 삽입할 핀마이크를 준비하여 컴퓨터의 오디오 입력포트(마이크가 표시된 곳)에 꽂아 둔다.
2. PowerPoint 슬라이드 쇼를 실행한다. 슬라이드 쇼 상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뒤 [화면]→[프로그램 전환]을 클릭하면 화면 아래 바에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이 출현한다.
3. 그 중 이미 실행시킨 Hiwork를 선택한다.
4. Hiworks 캡처 창 상단의 [목록]을 클릭하면 하단 창에 [PowerPoint 슬라이드 쇼]와 [Microsoft PowerPoint]가 표시된다. [PowerPoint 슬라이드 쇼]를 클릭한다.
5. 슬라이드 쇼 중인 PowerPoint 화면이 캡처창 화면 크기에 맞춰진다. Hiworks의 왼쪽 컨트롤 창 오른쪽 하단의 [환경설정]을 클릭한다.
6. ‘Dialog’창이 뜨면 용도에 맞게 녹화환경을 설정한다. 강의답재용인 점을 고려하여, [형식]은 WMV와 FLV 중 하나를 선택하며 [화면설정]은 ‘크기’: 800×600, ‘화질’: 글자, 강의중심(고화질), ‘FPS(프레임수)’: 30, [그외 설정]은 ‘마우스 커서 캡처’로 설정하면 좋다.
7. 마이크를 다시 한 번 확인 한 뒤 Hiworks의 [녹화시작]을 클릭한다. 녹화가 시작되면 컨트롤 창 보조화면에 녹화 중인 화면이 보인다. 녹화가 시작되면,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여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과 같이 한 장 한 장 넘겨가면

서 화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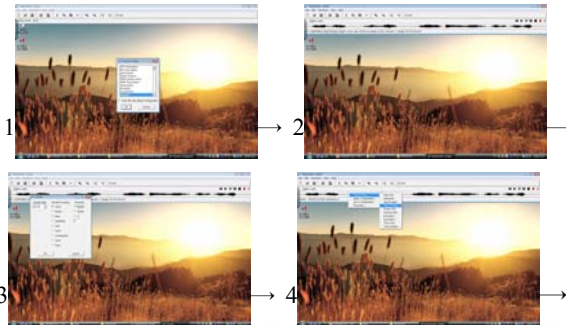
8. 녹화를 마치면 [녹화종료]를 클릭하여 녹화를 마친다. 녹화된 결과물은 ‘내 문서’→‘SaveRecord’ 폴더에 자동 저장된다. 파일명은 컴퓨터에 입력된 ‘년월일’이며 부가적으로 1, 2, 3 등의 숫자가 매겨진다.
9. 파일을 플레이어로 실행시키면, PowerPoint에 교수자 음성이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삽입된 음성, 영상 및 애니메이션 효과 등에 교수자 설명이 합성되어 웹에 탑재할 수 있는 강의저작물이 완성된다.
10. 가상강의시스템 또는 웹카페, 블로그 등에 탑재하여 학습자와 공유한다.

Hiworks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회화수업에서의 Blended Learning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회화수업은 일반적으로 ‘교수자 강의(단어, 어법, 단락 해석 등)→회화연습(듣기, 말하기)’으로 단계별 분류가 가능할 것인데, 이 중 ‘듣기와 말하기’라는 회화수업 본연의 목적에 준해 볼 때 단어와 어법해설 및 단락 해설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하기는 교수자의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Off-line 수업이 필수적이지만 그 외 교수자 강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피드백 보다 교수자의 강의 내용이 주를 이루므로 On-line 수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므로 단어 및 어법 설명과 문장 해석 등은 On-line 수업 위주로, Hiworks를 이용하여 녹화한 뒤 웹카페나 블로그에 올려 수업 전에 미리 예습해 오도록 하고 Off-line 수업은 예습 내용을 기반으로 실습 위주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Hiworks를 이용한 On/Off-line Blended Learning 수업설계는, Off-line으로만 진행했던 회화수업의 일정부분을 On-line 수업이 담당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Off-line 수업을 위한 강의자료를 그대로 녹화에 사용함으로써 On/Off-line 이원화에 의한 준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단어 및 어법 등 한 번 들어 부족한 설명을 On-line 상에서 반복 시청취함으로써 지식으로서의 어학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본질적으로, On-line 수업에 의해 확보된 Off-line 수업 시간을 학습자의 피드백에 좀 더 투자함으로써 기능으로서의 어학능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Off-line 수업 이외의 녹화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NG가 나면 다시 처음부터 녹화해야 한다), 웹카페의 운

영 및 관리, On-line 강의의 선행학습 유무의 체크 등 교수자의 좀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2.3.3.4 WaverSurfer(<http://www.speech.kth.se/wavesurfer/>)

WaveSurfer는 음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성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Praat가 있는데, 음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루기가 용이하지 않고 또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매뉴얼을 따로 익혀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외국인 억양(洋腔洋調)을 극복해야 하는 제2외국어 학습자들로서는 성조, 강세, 억양 등 초분절 자질들의 학습이 여간 어렵지 않은데, 극복의 일환으로서, 누구나 조작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교수-학습에 적용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성조는 음절에서의 음의 고저이고 억양은 문장에서의 음의 고저이지만, 음의 고저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성조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생소한 자질이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은 이들의 차이를 쉽게 체득하기 힘들어 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학습자 자신의 음의 고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인데, WaveSurfer는 그 과정에서 적절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WaveSurfer의 기능은 풍부하다. 즉석 녹음 및 플레이가 되며, 녹음된 음성의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 파형(waveform), 억양의 변화(pitch contour) 등을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이 중 WaveSurfer를 매개로 학습자의 억양을 피드백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WaveSurfer를 실행시킨 뒤 [File]→[Open]을 클릭하여 비교기준 음성 화일(원어인 음성파일)을 찾아 연다. ‘Choose Configuration’ 창이 뜨면 [Standard]를 클릭한다.
2. 음성화일의 파형이 보이면 상단의 메뉴바에서 [Transform]→[Convert]를 클릭하여 음성 Channel을 변환한다.
3. ‘Convert’ 창이 뜨면 ‘Channels’의 [Stereo]를 [Mono]로 지정한 뒤 [OK]를 클릭한다.
4. 파형 창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다. [Create Panel]→[Pitch Contour]를 클릭한다.
5. 비교기준 음성화일의 억양 굴곡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파형 창과 억양 창이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 억양 창 상단의 ‘↺’를 클릭한다. 억양 창 우측 상단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음성의 재현과 함께 억양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6. 비교대상 음성화일(학습자 음성파일)을 만들기 위해 창 좌측상단의 ‘□’ (New)를 클릭한다. ‘Choose Configuration’ 창이 뜨면 [Standard]

를 클릭한다.

7. 새로 열린 창 우측 상단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시작한다(원어민 음성파일과 같은 내용). 정지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끝나면서 학습자 음성 파형이 창에 출현한다.
8. 상단의 메뉴바에서 [Transform]→[Convert]를 클릭한다. ‘Convert’ 창이 뜨면 ‘Channels’의 [Stereo]를 [Mono]로 지정한 뒤 [OK]를 클릭한다.
9. 파형 창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다. [Create Pane]→[Pitch Contour]를 클릭한다.
10. 비교대상 음성파일의 억양 굴곡이 출현한다. 아래 파형 창과 억양 창이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 억양 창 상단의 ‘[x]’를 클릭한다. 나란히 놓인 비교기준 음성의 억양과 비교대상 음성의 억양을 비교하여 보완점을 학습자에게 피드백한다.
11. 상단 메뉴바의 [File]→[Save as]를 클릭하여 결과를 저장한다.

회화 수업을 하다보면, ‘의문부호가 붙었다고 해도 억양이 모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학습자에게 체득시키기가 쉽지 않다. ‘嗎의문문’과 ‘뻐의문문’ 간의 억양 차이 지도가 대표적인데, 학습자들에게 원어민의 억양과 자신의 억양을 비교하여 보여준다면 자신의 오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정하는데 적극적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자 모두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수차례 피드백을 해도 학습자가 피드백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했음에도 쉽게 고칠 수 없는 경우 ‘시각적인 음성의 재현’에 기대어 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포터블PC나 웹PC를 이용한다면 상호작용의 기동성을 확보하며 피드백을 줄 수 있다.

2.3.4 학습자 발화와 행위 연구: F4(with VLC MediaPlayer¹⁸), JDK(또는 JRE)¹⁹)

18) <http://www.videolan.org/vlc/>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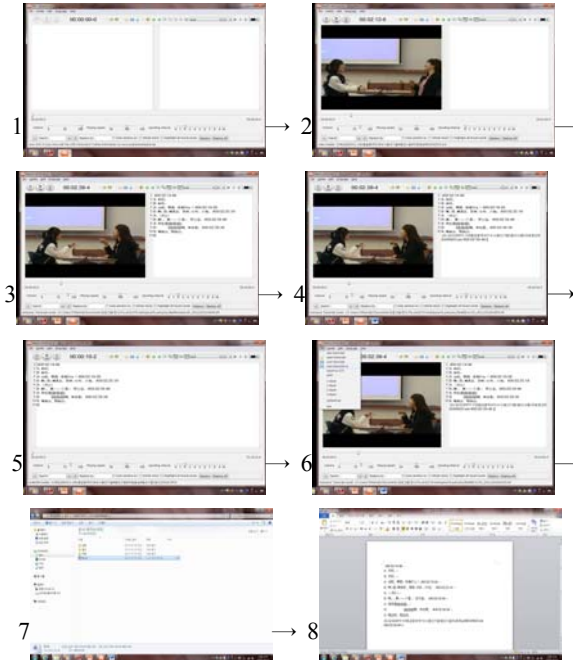
19)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index-jsp-138363.html>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회화수업’은 연구의 대상으로서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 특히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적 시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서 수업을 연구한다면 교수자의 언행과 비언어적 행위, 학습자의 언행과 비언어적 행위, 제도적 상황 하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등, 주어진 언어환경 속에서 발화를 통해 상호작용 참여자가 어떻게 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율과 타협에 의한 목표를 성취하는지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녹화를 위한 Video Camcorder와 녹음을 위한 Audio Recorder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기호와 문자로 기록하기 위한 전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전사는 음성 전사, 문자 전사 등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상호작용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성적 차이를 무시한, 문자 전사를 택한다. 상호작용 결과를 문자로 전사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띄워주는 영상매체 플레이어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워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 둘을 같은 창에 띄워놓고 전사 작업을 해도 무방하지만, F4는 한 창 안에 영상(및 음성) 재생과 전사 기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2.3.4.1 F4(<http://www.audiotranskription.de/english/downloads-en.html>)

F4는 상호작용 전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F4는 한 화면에 영상/음성 플레이어와 전사 기록 창이 함께 재생된다. 영상과 음성을 재생 및 되감기/빨리감기할 수 있고 동시에 전사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F4 자체에는 영상과 음성을 재생하는 플레이어가 없다. 그래서 VLC MediaPlayer를 함께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하는데, VLC MediaPlayer는 그 자체로도 영상 및 음성 실현이 가능하지만 F4에서는 미디어를 실행시키는 플레이어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F4 상에서는 VLC MediaPlayer의 스킨도 보이지 않으며 기능도 F4의 기능키(재생, 정지, 되감기, 빨리감기)에 따라 작동한다. F4를 실행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 JDK(Java Development Kit) 또는 JRE(Java Runtime Environment)이다.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키는데 있어 안정적인 환경을 지원해주는데 필요하다. PC에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고창이 뜨며 이 경우 아래 제시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키면 된다. 아래에서는 F4의 간단한 조작법에 대해 알아본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VLC MediaPlayer와 JDK(또는 JRE)까지 모두 탑재한 상태에서)F4를 실행시킨다. 왼쪽은 영상 창이고 오른쪽은 기록 창이다.
2. 상단 메뉴바의 [media]→[open video file]를 클릭한다. ‘열기’창에서 영상 파일을 찾아 삽입한다.²⁰⁾
3. 영상을 분석하며 전사규약에 의거해 전사한다.²¹⁾ 행간 Enter키를 칠 때

20) WMA, FLV, AVI 등 상당수 형식의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으나 되감기, 빨리감기 등의 건너뛰기 기능(Spooling interval)은 AVI 형식의 동영상과 가장 잘 호환된다.

21) 전사와 관련해서는, Du Bois, John W., Schuetze-Coburn, Stephan, Cumming, Susanna, and Paolino, Danae.(1993) <Outline of discourse transcription>In eds. Jane A. Edwards and Martin D. Lampert《Talking data: Transcription

마다, Enter키를 칠 때 당시의 시간이 자동기록된다. 전사 도중 기 기록된 상황을 재관찰하고자 할 경우 자동 기록된 시간을 클릭하면 기록된 시간대의 영상이 재생된다.

4. 전사 작업을 마쳤으면 상단 메뉴바의 [edit]→[insert timestamp and file]을 클릭한다. 전사내용 하단에 동영상의 저장 위치와 전사를 중지할 당시의 시간이 자동 입력된다. 추후 작업을 이어서 하고자 할 경우, 기록된 동영상 경로를 따라 영상을 열고 시간을 클릭하면 영상이 작업을 중단할 당시부터 재생된다.
5. 음성을 전사할 때의 모드이다. [media]→[open audio file]을 클릭하면 영상 창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기록 방법은 상동이다.
6. [file]→[save transcript as]을 클릭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뜨면 ‘파일이름’을 기입하고 [저장]한다. ‘F4’ 창이 뜨면 ‘please choose a save-option’의 [save with timestamps]→[OK]를 클릭한다. ‘Hint (저장된 결과물에 타인의 접근을 막으라는 내용)’ 창이 나오면 [OK]를 클릭한다.
7. 전사물이 저장된 위치를 찾아 확인한다. 결과물은 rtf형식으로 저장되며 MSWord에서 열린다.
8. 전사물을 MSWord에서 볼 수 있다. F4에서 전사를 이어가려면 [file]→[open transcript]를 클릭하여 기존의 전사기록을 불러온다. 음성을 불러온 뒤 전사물에 기록된 시간을 클릭하면 해당 시간대의 음성으로 이동한다.

전사의 목적은 실증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전사는 아무리 정밀하게 기록한다고 해도 실제의 상황 모두를 기록해내지 못 한다. 시선, 손짓, 웃음 등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화와 시선, 발화와 손짓, 발화와 웃음 등 한정된 범위 하에서 전사를 진행한다. 발화 그 자체, 그리고 발화와 기타 요소 간의 관련성에 집중해도 상호작용의 순간적인 역동성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우고 번갈아가며 작업한다면 시선이 분산되어 작업의

and coding in discourse research》, pp.45~89. Hillsdale, NJ: Erlbaum를 참고하라.

효율성은 쉽게 떨어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F4는 작업의 일원화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전사를 더 편하고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데 일조한다. 편리성을 중심으로 F4의 기능을 나열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화면에 영상 창과 전사 창이 나란히 배열되어 시선의 분산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영상 창과 전사 창에는 전사작업에 필요한 기능들만 집약, 대두시켜 놓아 매뉴얼 학습의 부담이 적다. 영상 창은 볼륨, 어속, 건너뛰기 간격 조정과 재생, 정지, 되감기, 빨리감기 기능이 전부다. 전사 창은, 그 결과가 ‘rtf 형식’이란 점으로 미루어볼 수 있듯, 흡사 Windows ‘보조 프로그램’의 ‘워드패드’와 유사하다. 워드패드 형식에 시간기록 삽입 기능과 행이 바뀌면 자동으로 발화자 전환표시(A: ↔ B:)를 붙이는 기능 정도가 부가되었을 뿐이다. 셋째, 워드패드에 중국어 입력이 자유롭듯 F4에서도 폰트입력의 충돌 없이 한자 입력 및 서체 변환이 가능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F4를 이용한 전사 결과물이 MSWord와 호환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MSWord로 불러올 수 있는 서식은 Excel과 PowerPoint 및 한글Word에서도 호환되기 때문에 중간의 변환과정 없이도 보고자료 인용과 발표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rtf 형식은 텍스트 파일의 형식으로서, 축적된 결과물은 향후 자연담화 말뭉치 구축에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교수설계와 수업진행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수업을 위한 프리웨어와 사용방법을 소개하고 중국어 수업의 각 단계별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하였다. 테크놀로지는 교수매체의 일부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언제나 활용할 수 있게끔 평소 수업에 자주 적용해보고 시행착오를 수정해 가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내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또 설정한 수업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그것의 사용에 앞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

는지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교수설계 모형 중 Dick & Carey 모형과 ADDIE 모형, 그리고 ASSURE 모형을 들어 상호 대응관계를 지어보고 현장 수업에 맞게 수정된 절차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수업의 설계 및 진행에 도움이 되는 10개의 프리웨어를 선별하여 간략한 사용절차를 함께 소개하고 그 효용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

테크놀로지의 저변 확대와 변화 속도는 향후 일상의 패러다임은 물론 교육의 패러다임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변화의 흐름을 교수자 개인이 응하기에는 분명 부담일 것인 만큼 정보와 지식, 경험의 상호 공유는 점차 절실한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교수자들 간에, 인식과는 다르게, 매체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연대와 상호 교류는 아직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²²⁾ 본고의 논의가 그와 같은 움직임의 작은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 고 문 헌

- 김동식, 강명희, 설양환 역 《체제적 교수 설계》,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9[원저: Walter Dick, Lou Carey, James O. Carey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 Pearson Education, 2009]
- 김용진, 장남기 <시청각 학습의 반복 수행에 따른 전두부의 뇌파 활성도 변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1(3), pp.516~528, 2001
- 金孝眞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 수업의 효율적 학습방안>; 《中國語文學論集》 38, pp.133~153, 2006

22) 이옥주(2008:278~280)는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의 일선 교수자들이 매체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한 반면 그에 대한 연계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해석하면서 그것의 극복을 위한 기술적 측면의 교육도 함께 요구된다고 하였다.

- 박정원 <중국어 교육을 위한 중한 통합 자막 저작도구, 제작 방법론 연구>; 《중국어학 연구》 50, pp.31~58, 2009
- 설양환, 권혁일, 박인우, 손미, 손상호, 이미자, 최옥, 홍기철 역 《교육공학과 교수매체》,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5[원저: Sharon E. Smaldino, James D. Russell, Robert Heinich, Michael Molenda 《Instructional Technology and Media for Learning》, Pearson Education, 2005]
- 심소희 <매체변동에 따른 중국어 교수모형의 한 가지 제언>; 《中國語文學誌》 26, pp.325~341, 2008
- 엄익상, 박용진, 이옥주 《중국어 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1
- 이승희, 이정희 <중국어 교육을 위한 온라인 협력환경에서 활동과정 및 성과의 관련성 규명>;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0(1), pp.242~260, 2007
- 이옥주 <중국어교수자의 멀티미디어 교수매체에 대한 인식과 활용 연구>; 《中國語文學誌》 27, pp.247~297, 2008
- 이옥주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CALL(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中國語文學論集》 43, pp.101~119, 2007
- 이정희, 이승희, 김진우 <효과적인 중국어 학습을 위한 이러닝 설계 원리 탐색—상황 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7(2), pp.315~333, 2004
- 이지연 《예비교사를 위한 실제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경기도: 서현사, 2008
- 이충현 <멀티미디어 영어 교수학습의 원리 및 적용>; 유편, 임창근, 한중임, 이충현, 정규태, 임희정, 김인옥, 박은영, 신인호, 윤미현 공저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교육》, pp.10~46, 서울: 북코리아, 2005
- 이혜정 《내 강의를 업그레이드해주는 Blended e-Learning 교수전략》, 경기도: 교육과학사, 2008
- 조규락, 김선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교육공학의 3차원적 이해》, 서울: 학지사, 2006
- 조윤교, 김태성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CD-ROM 타이틀의 설계와 구현>; 《언어와 언어학》 36, pp.105~125, 2005.
- 趙恒瑾 <중국어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 교수 매체 활용 방안>; 《中國語文學論集》 67, pp.247~273, 2011.
- 한정선, 김영수, 주영주, 강명희, 정재삼, 박성희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경기도: 교육과학사, 2008
- Du Bois, John W., Schuetze-Coburn, Stephan, Cumming, Susanna, and Paolino,

Danae.(1993) 〈Outline of discourse transcription〉In eds. Jane A. Edwards andMartin D. Lampert《Talking data: Transcription and coding in discourse research》, pp.45~89. Hillsdale, NJ: Erlbaum

❖ ABSTRACT

Study on Application of Multimedia Freeware to Instructional Design: Focused on Chinese Conversation Class

Park, Chan Wook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some useful multimedia freewares, and also support Chinese instructor with discussing how to operate them for instructional design of multimedia language learning class. For this aims,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instructional design. This part is focused to what kind of instructional model to be based on, for example, Dick & Carey model, ADDIE model, ASSURE model etc. This part introduces these models, and modifies ADDIE and ASSURE model to D.D.A.I.E.S and S.S.A.U.R.E.S as 'A(nalysis)' in these model may apply to the next 'D(evelopment)' on ADDIE, 'S(elect Methods, Media and Materials)' on ASSURE in the practical Chinese class. Second, Programme: What to use. This part is focused to what kind of free software we can use. In the web site online, there are huge free softwares so we usually hesitate to select and also don't know how to operate even though selected one of them. This part, accordingly, introduces ten of useful freewares and compares each other in terms of usefulness for Chinese instructors. Third, Programme: How to use. It is of no use just to know what to use but not to know how to operate, so this part describes how to use freewares like a kind of manual in detail as far as possible. In conclusion, we hope more Chinese instructors to learn and use more useful freewares for designing the better multimedia Chinese class by this paper.

Key Words

교수설계, 멀티미디어, 교수 매체, 프리웨어, 중국어수업
instructional design, multimedia class, instructional media, freeware, Chinese class

논문접수일: 2011. 10. 21.

심사완료일: 2011. 12. 02.

게재확정일: 2011. 12. 09.

프랑스 시민대학, “대학 밖 대학” 특성과 운영

황 성 원
(건양대학교)

I. 서론 : 시민대학의 특성

유럽 각국에서 시민대학(Université populaire)은 대중교육기관으로서 이론적이며 실천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독일은 덴마크와 영국의 영향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성, 계층, 연령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교육과 일반 교양교육 사이에 구별을 두지 않고 통합적인 교육활동을 지향하고 있다(박효진, 2007: 13). 이러한 시민대학은 덴마크가 절대군주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계몽교육 차원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시민대학은 빈곤층과 소외층에게 시민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 철학자이자 루터파 목사인 그룬트비(Grundtvig(1783-1872)가 처음 도입하였다(서지현, 2005).

그렇다면 인접 국가인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이나 성인교육 관점에서 독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프랑스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프랑스의 “대학 밖 대학”¹⁾

1) 자크 테리다는 철학과 다른 학문 사이의 장벽을 넘는 교육기관으로서 모든 사람들

이라는 시민대학의 역사, 운영 특성,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반유대주의적 상황과 의무교육의 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하였다.²⁾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시민대학은 이러한 비이성적 태도와 절제되지 않은 열정에 인본주의적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J. 페리Ferry 등 공화파가 주도한 19세기 말 학교개혁 당시, 초등교육의 무상화는 학동기 시절에 공교육을 받지 못했던 성인들에게 학습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보통교육을 받지 못했던 당시의 성인들도 어린이들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시민대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시민대학의 다양한 형태인 “비종교적 시민대학” “민주시민과 민중대학” “작은 시민대학” 등 여러 이름 등으로 불리었던 모호하고 막연한 명칭을 명료화하였다.

처음에 '시민'과 '대학'을 결합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은 시민대학이 파리 8대학처럼 서민층이 모여 사는 환경에 설립되었거나 뱅센느(Vincennes) 대학이 주장하듯이 서민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대학을 한 가지 형태로만 고정해서 볼 수는 없다 (Chateigner, 2010).

F. 샤테니에Chateigner는 2010년 5월 11일 파리 8대학 시민대학과 시민교육 세미나에서 프랑스 시민대학의 주요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시민대학을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프랑스 시민대학연합을 약자로 표기한 AUPF(Association des Universités Populaires des France)이며, 주로 북유럽과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 또 다른 하나는 M. 옹프레Onfray가 사상의 협력La Coopération des idées³⁾에 기초하여 설립한 캉(Caen) 시민대학이다. 그 외에 다른 두 가지 유형으로 ATD

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대학을 “대학 밖 대학”이라고 불렀다.

- 2) L. Mercier는 자신의 저서에서 1899년에서 1914년까지 진행된 시민대학의 설립은 민중교육과 노동자 운동을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 3)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사상의 협력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대학 역사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Quart-Monde 시민대학⁴⁾과 모든 연령층을 위한 대학이 있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네 가지 유형 중 대학의 기능과 유사하지만 다르게 운영하는 대학 밖 대학으로서 특성을 가진 시민대학연합 사례와 캉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초기부터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서로 연합하여 존재해 왔다. 유럽시민대학 학장 L. 브라운Braun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위치해 있는 유럽의회 도시인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시민대학은 연합Associ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말하자면 동일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개인은 집단 내의 구성원으로서 개별적 발달을 하고, 그런 개인이 모여 구성된 연합이라고 표현하였다. 말하자면 시민대학의 독창성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증진시키며, 개선된 관계는 궁극적으로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시민대학연합인 AUPF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원칙으로 시민대학은 선발 기능을 갖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샤테니에는 시민대학이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교양과 문화의 정통성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언어, 컴퓨터, 요리 등을 중심으로 한 강좌들은 교양문화의 정통성과 상관이 없으며, 주로 사회문화적인 활동을 추구한다.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AUPF의 토론 주제였으며, 토론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합법적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교육이 갖는 의미와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을 주로 다루었다. 이렇게 지식과 자격의 상대주의는 대학교육과정에서 기술교육과 방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프랑스 시민대학은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을 보장할 수 있어 매우 대중적이다.

둘째 원칙으로 시민대학은 지역사회의 발달에 기여하며, 이는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시민대학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형식적이다. 교육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민대학 형태 자체에서 정치

4) ATD Quart-Monde 시민대학은 기아와 빈곤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대학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를 말한다. 드프렌느-타르디외Defraigne-Tardieu는 이 유형의 시민대학을 주제로 하여 2009년 파리 8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적 성격이 드러난다. 시민대학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민들에게 주는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원칙은 시민대학 자체의 다양성과 운영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Chateigner, 2010). 여기에는 재정지원의 문제가 있다. 보통의 규정에는 연합 회원들이 활동에 참여하면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내야하고, 이는 교수자에게 강사료로 지급된다.

또 다른 프랑스 시민대학의 주요 유형에는 2002년부터 M. 옹프레Onfray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노르망디 지방의 캉Caen 시민대학이 있다. 그는 철학자이며, 학교에서 스스로 물러난 전직 교사이다. 샤테니에는 그가 학계에서는 학술적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현재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의 존재감은 엄청나다고 한다.

M. 옹프레Onfray는 일반인들에게 지식을 무료로 나누어 줌으로써 교양과 문화를 대중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서의 교양이나 문화는 자신을 구성해가는 자원으로 보는 것이지 사회경제적인 체제에 입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크고 대단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토론, 포럼, 세미나, 계절 대학의 성공과 출판인들 사이의 아이디어 수집은 진정성 있는 삶에 대한 욕구를 증명해준다고 하였다.

이 철학자는 대중들에게 지식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대학교의 엘리트주의와 철학 카페의 즉흥적 반응 사이에 고민한다. 대학교의 엘리트주의는 사회체제를 재생산하여 체제 내의 자리를 확실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것이고, 철학 카페와 같은 실천은 자신 혹은 타인과 철학적 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⁵⁾.

옹프레가 상상한 시민대학은 지적인 요구가 높은 전통적인 대학과 철학 카페에서 보여주는 장점을 동시에 취하는 것이다. 전통적 대학에서는 전달된 정보의 질과 개인의 진보를 허용하는 원칙, 모든 토론 이전에는 우선적으로 강의의 전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철학 카페에서는 대중에게 개방, 지식의 비판적 접근, 강의 내용을 쉽게 접근하는 수단으로서 대화를 실천한다. 그는 “철학을 시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철학이 있는 곳까

5) 이 말은 철학 카페를 열어 철학을 막연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대중들이 개인 내적 또는 개인 간 철학적 대화의 실천을 자유롭게 진행한다라는 뜻이다.

지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김세희, 2005).

II. 프랑스 시민대학의 역사

프랑스의 첫 시민대학은 1899년 “사상의 협력La Coopération des idées”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고, 상호 교육'éducation mutuelle을 위한 우호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사상의 협력”이라고 말한 드에름Deherme은 몽트뢰-수-브와Montreuil-sous-Bois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시민대학의 형성을 주도하였으며 개인의 행동이 다른 인간을 통해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말하자면 노동자가 연구방법을 이해하려면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식인은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노동자로부터 안내 받는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상호 교류하며 함께 고민하는 곳이 시민대학이다.

드에름은 독학한 인쇄공으로서 노동자들 중 지식수준이 높은 엘리트층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전통교육의 장에서는 소외되어왔다. 그럼에도 사회학 월간지를 제작하여 A. 콩트Comte와 실증주의, 유럽의 식민지화 등에 관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시민대학이 과학적이며 철학적 영감을 일깨우고 사회과학을 대중화하는 중심 기관이기를 원하였다. 1899년 시민대학협회의 창립을 주장하였고, 이 협의회에 1901년 당시 124개의 시민대학과 50,000명의 회원이 가입해있었다(Defraigne-Tardieu, 2009: 90).

드레퓔스Dreyfus 사건⁶⁾이 끝날 무렵,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과 노동자들이 어렵게 공존하였으나 가르침이 너무 약해 당시의 정치계는 시

6) 1894년 9월 프랑스군 육군대위 알프레드 드레퓔스는 군의 기밀문서를 프랑스 주재 독일대사관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된다. 군 당국은 드레퓔스의 필적이 첩자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를 진범으로 지목한 뒤 중신 유형을 선고했다. 2년 뒤인 1896년 새 정보부장 피카르 중령은 진범이 헝가리 태생의 에스테라지 소령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권위 실추를 두려워한 군 지도부는 그 사실을 얼버무리며 오히려 피카르를 좌천시키고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에스테라지를 무죄 석방해버렸다. 1906년 7월 드레퓔스가 최고재판소에서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이 역사적인 사건은 발생 12년 만에 막을 내렸다.

민대학 발달을 단호하게 중단시키려 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시민 대학을 만들었으나 지식인들이 빠른 속도로 시민대학을 점유했다. 그 이유는 강연 주제를 선택할 때, 아무래도 노동자층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고, 노동자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는 것은 더 더욱 드물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식인과 노동자의 교류는 점점 어려워졌고, 주제는 철학, 역사, 문학, 정치경제, 과학 등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강연장 분위기는 강사 위주로 엄숙히 진행되어 상호 교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지식인과 수공업자들의 한담 시간이 되었고, 지식인들의 압도적인 위상으로 인해 시민대학 본래 취지였던 상호 교육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대학이 없어졌고, 1914년에 약 20개 정도만 남았다.

1904년 한 회람서에는, 유명한 모든 시민대학들이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 파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파리의 30개 시민대학과 지방의 39개 기관 등 총 69개의 시민대학이 참가하였다. 이 때, 시민대학에는 3가지 임무가 주어졌다. 첫째 임무는 교육에 실패한 시민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는 공권력에 직면하여 도덕적 힘을 갖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최고의 기능을 보장하는 회보를 출판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인쇄된 7편의 회보는 1905년 10월에서 1910년 8월까지 나왔으며, 마지막 협의회는 1912년에 개최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은 시민대학에 대한 계획의 본질을 변화시켰고 양차 대전 사이에 재탄생한 시민대학은 정치의 방향과 일치한다.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 Simone Weil는 부르주아Bourges의 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1935년 12월 『노동자 대학의 창립을 위하여』를 출판하였다. 노동자 대학 설립 모임은 1936년 1월 24일에 구성되었고 준비 기간 후 1936년 2월에 첫 강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제 2차 세계 대전은 시민대학의 발전에 새로운 단절의 시간이 되어 여러 기관들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새로운 시민대학은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위치한 알자스Alsace 지방에서 나타났으며 그 때부터 매우 급속히 발전하여 오늘날 프랑스의 시민대학 형태를 갖게 되었다. 1963년에 랭Rhin⁷⁾ 시민대학이 뮐루즈Mulhouse에서 탄생하였는데 이곳에서 개최한 학회는 시민대학과 파리의 대학이 함께 만났다는

점과 동시에 기존의 시민대학과 새로운 형태의 시민대학이 마주하는 접점을 이루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왜 알자스 지방인가?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독일과 가까워 유사한 문화적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알자스 지방에는 오래전부터 독일의 시민대학Volkshochschulen 형태가 존재해왔고, 성인교육의 공공 서비스 임무를 책임져왔다. 독일 시민대학의 영향은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현재에도 매우 중요하게 남아있다.

랭 시민대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시민대학연합AUPF(Association des Universités Populaires des France)을 발족한 대학이기 때문이다.

1983년 5월, 뮐루즈 시민대학은 당시 시민대학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학회를 개최한다. 이 때, 일리치Illich⁸⁾가 참석하였고 13개 시민대학들이 참여하였다. 이어 1984년 12월에는 민속학, 지역문화, 문화활동을 주제로 학회가 있었다. 이 두 모임에서 시민대학이 국가 수준의 구조적 형태를 갖추고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숙고하였다.

1985년 5월 부르쥬Bourges에서 시민대학과 건강이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프랑스 시민대학이 함께 연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시민대학의 일부 책임자들은 자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1986년 11월 학회에서 시민대학과 생활외국어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고, 9개의 시민대학이 참여하여 국가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세가지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다. 즉 이미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선발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것, 시민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 마지막으로 시민대학의 다양성과 각 기능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이었다

7) 랭(Rhin)은 독일어로 라인강을 말한다.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은 프랑스령과 독일령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프랑스에 속하지만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다. 알자스 지방은 보주 산맥과 라인강 사이에 있으며, 강줄기를 중심으로 두 개의 행정구역이 형성되었다. 바로 오랭(Haut-Rhin)과 바랭(Bas-Rhin)이다.

8) 192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철학자이자 신학자로서 『학교 없는 사회』를 저술하였고 해방신학 운동을 전개한 진보 학자였다.

(Chateigner, 2010).

그 후 10년이 지난 1996년, 프랑스의 시민대학연합AUPF은 약 40여 개의 지방, 시도, 지역 수준의 모임을 통해 60여개의 시민대학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프랑스 본토와 프랑스로를 포함하여 17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시민대학 프로그램에는 건강, 언어, 컴퓨터가 주를 이루며, 대학들이 연합하여 관리하는 강좌에는 문화 마케팅, 소통 전략, 연합과 시장 등이 있다. 세계화와 관련 있는 주제에는 사회적 관계, 유럽, 지역 개발 등이 있다.

현재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100개 이상의 기관이 프랑스 시민대학연합AUPF에 등록하여 성인교육의 도약적 발전에 기여한다. AUPF는 더 이상 불어권 시민대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시민대학이 모여 매년 개최하는 학회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유럽이 프랑스 시민대학에 보이는 관심 정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2004년 11월 메스metz에서 개최한 학회는 유럽의 많은 시민대학들과 유럽성인교육협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학회를 기념하여 2004 그룬트비Grundtvig 상을 수여하였는데, 그 당시 수상 프로그램은 소크라테스와 에라스무스⁹⁾라고 명명되는 프로그램에 충분히 견줄만하였다¹⁰⁾.

프랑스 시민대학연합AUPF에는 시민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 뿐 아니라 UTL, UTP, 노인 대학¹¹⁾ 등이 공동 사이트를 통해 여러 유형의 운영

9) 소크라테스는 유럽 국가의 학생교류 프로그램 전체를 말하며 2007년부터 교육과 양성과정 프로그램(2007~2013)으로 대체되었다. 그 전까지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중 에라스무스가 가장 유명하였다. 에라스무스는 12개 국가의 유럽공동체에서 가장 성공적인 교육실천의 한 사례이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학교와 학생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10) 그룬트비상은 성인을 위한 상으로 학업을 다시 수행하거나 새로운 자격을 위해 준비하여 졸업장을 취득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개인과 사회의 발달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한 경우에 주어진다.

11) 시민대학이라는 말을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유시간대학(UTL) 등과 같이 시민대학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1973년 처음 시작하여 1981년에 노년학의 발달로 제 3세대 대학으로도 발전하였다. 다양한 시민대학의 종류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형태와 유사한 시민대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형태를 공유한다. 또한 매년 11월 중에 공동의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대학과 성인교육 책임자와 운영자들이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2008년 여름, 스키지라 살Cerisy-la-Salle에서 시민대학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학회를 개최하였다. 시민대학 대표들이 만나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고 역사적 기원과 참여 기관의 운영 목표와 특성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프랑스 시민대학은 19세기 말에 시작하여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알자스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시민대학연합은 1960년대 다시 부흥하여 현재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캉Caen 시민대학은 교양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2002년 철학자 M. 옹프레가 처음 설립하였고, 그 후 2005-6년 리옹Lyon 시민대학이 캉 시민대학을 모델 삼아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남동부 지역 11개 기관과 북서부 지역 4개의 시민대학으로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III. 프랑스 시민대학의 운영

첫째 유형으로 언급한 프랑스 시민대학연합AUPF의 사례 중 우리나라 시민대학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알자스 지방의 유럽시민대학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것이며, 두 번째 유형으로 옹프레Onfray가 창안한 캉 시민대학의 운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¹²⁾.

1. 유럽시민대학(알자스 시민대학)

1920년에 교수들이 모여 대학교육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 아래 창립되어 1928년 시민대학이 되었고, 1965년 유럽시민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12) 알자스 시민대학 개설강좌의 종류를 안내하고 있어 단순히 나열하는 것 같지만 각 강좌별 운영 특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강좌를 진행하고 무엇을 다루는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는 강좌수가 많더라도 최대한 소개하고자 하였으나 캉 시민대학은 각 강좌별 제목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강의 콘텐츠를 인쇄자료로 공개하지 않아 자료 찾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시작하였다. 유럽시민대학은 학력의 수준과 무관하게 자신의 관심 분야와 호기심에 따라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며, 재능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시민대학은 1919-1920년에 첫 강좌를 시작할 때, 프랑스 언어와 문화를 가장 먼저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언어 관련 강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1940-50년대에는 강좌가 다양해졌다. 오늘날에는 수강 학생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상호작용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대학 밖 대학"으로서 수강생들이 서로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시민성을 키우는데 주력한다.

1) 2010-2011년도 개설 강좌

◇ 외국어

수준별로 나누어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따라 문법반이나 회화반, Toec 시험 대비반, 집중 강의반도 있다. 직장생활의 성공을 위해 영국에서 인정되는 졸업장을 취득할 수도 있고, 미국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 Toefl과 Toec시험 대비반을 통해 미국문화에 대한 지식도 심화시킨다. 동시에 프랑스의 그랑제콜 시험 준비반이 있기도 하다.

독일어의 경우, 수준을 나누어 회화, 읽기와 듣기, 문학작품과 연극 등을 배운다. 스페인어도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문화 강의와 더불어 회화, 연극, 스페인어 시험대비반 등을 운영한다. 이탈리아어도 역시 수준별로 이루어지며 문학, 비즈니스, 영화, 노래 등 분야별로 개설되어 있다. 그 밖에 현대 아랍어, 현대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강의가 있다. 특히 한국어 강의는 주 2회 초급과 중급 2개 반으로 진행한다.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프랑스어는 입문, 초급, 중급, 고급반 모두 4수준으로 나누어 가르친다. 입문반은 구어 이해, 기초 의미구조와 어휘 등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반이며, 초급반은 말하기와 쓰기 표현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에게 적당하다. 중급반은 구어 이해와 표현에 대한 심화, 문법 규칙 습득이 목적이다. 마

지막 중급반은 어휘를 다양화하고, 문법 규칙(시제 일치, 복문), 요약과 의견 정리 등을 심화한다. 반을 나누기 전에 언어 능력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보통 주 2회 집중 강의를 하나 고급반은 주 1회 진행한다.

이 뿐 아니라 프랑스어 회화반을 주 1회 또는 주 2회 운영한다. 또한 일반 프랑스어능력 자격시험(DELF)과 프랑스어 전문시험DALF 대비반을 주 1회 2시간 수강할 수 있으며, 각 반마다 추가 요금 55유로를 지불한다. DALF 시험을 통과한 비프랑스어권 학생들은 프랑스 대학입학을 원한다면 언어시험을 면제받는다.

◇ 자국민을 위한 프랑스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철자와 세련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1회 운영하는 프랑스어 강의가 있다. 이 강의는 경쟁시험과 논술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자전적 소설 등과 같은 어려운 책을 함께 읽는 프랑스 문학 수업도 있다.

◇ 알자스어/알자스 역사

알자스 지방은 고유한 지역 언어를 사용해왔다. 『알자스어, 알자스 문학과 알자스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싶은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강좌이다. 로마 시대에서 1950년대까지 알자스 지방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주 1회 연도별로 소개하고,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예정된 5개의 견학지를 탐방한다.

◇ 철학

철학 강좌는 모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도덕과 윤리에 관련된 한 가지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이번 해에 다루는 주제는 고소나 고발의 문제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의를 밝히고자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는 일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사람들은 모두 고소할 자격이 있는지를 다룬다. 원고와 피고로서의 경험과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진리와 정의의 문제를 접근한다. 여기에 철학과 정신분석학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는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연구한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의 책을 함께 읽어가며 욕구가 나타나는 과정을 깊이 있게 생각해본다. 사람이나 사물을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부족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구를 현실로 끌어내는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이는 2009-2010년 강의를 좀 더 발전시킨 내용으로서 결국 욕구는 지속적으로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된다.

셋째는 강의실 밖이나 영화 속에서의 철학에 접근하는 내용이다. 학기가 시작하는 10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월 1회 토요일 오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한다. 관람 후, 영화 내용과 관련된 개념, 글, 철학적 문제를 대화로 진행한다. 마이크 레이트, 우디 알렌, 봉준호, 펠리니, 외스타슈, 피알라 등의 영화를 폭넓게 선정하여 행복, 자연과 문화, 정의 등의 주제에 철학적 질문을 하고, 신의 죽음이나 유희, 괴물, 성 등에 관한 개념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 우주론

이 강좌에서 기독교 인본주의자 N. 코페르니쿠스Copernic(1473-1543)를 탐구하여 우주에 대한 당시의 관점을 이해한다.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라는 책을 통해 16세기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우주론과 다르게 제시한 지동설을 이해한다.

◇ 역사학

종교사를 중심으로 15세기에서 17세기의 유럽 정치와 종교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가의 권력과 종교에의 신념을 강조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 주 1회 1시간 30분씩 강의를 진행한다. 이 강좌 외에 16세기 중앙 유럽에서 제 1차 세계대전까지의 유럽 왕조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중앙 유럽의 역사를 재구축해가는 시점에서, 거의 흩어져 버린 왕족의 후손들 예를 들어 로마노프 왕족, 합스부르크 왕족 등 왕족의 탄생과 몰락의 과정을 다룬다.

◇ 예술사

유럽시민대학에서 매우 자세히 구성되어 있는 강좌가 바로 예술사이다. 강

좌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술사 입문, 전통 고고학, 크레타 섬의 도시와 궁전(미노스와 미케네 문명),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 베니스의 예술, 들라크루와Delacroix에서 르누와르Renoir까지, 유럽 바로크 여행, 황금의 세기 18c 예술, 모더니즘과 아방 가르드avant-garde로 향하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예술, 르네상스시대에서 프랑스 혁명까지의 프랑스의 성과 정원, 근현대 미술사, 오페라의 역사, 영화, 19-20세기 가구의 역사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강좌들은 보통 주 1회 개설하고 있으나 예술사 입문과 르네상스 예술, 베니스 예술 여행, 유럽의 바로크 예술, 18세기 예술, 프랑스 성과 정원, 오페라의 역사 등은 주 2회 개설하였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수강해 온 학습자들을 위한 강좌와 신규 학습자들을 위한 강좌가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몇 개의 강좌를 살펴보기로 하자. 예술사 입문은 르네상스에서 19세기까지의 주요 단계를 설명하고, 프랑스의 바로크와 고전주의, 로코코에서 신고전주의까지의 변화, 19세기 주요 예술적 특성을 다룬다. 이 강좌의 목적은 예술양식과 형태의 변화를 알고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지배적인 예술양식의 맥락에서 작품과 예술가를 이해하는데 있다. 고고학은 지중해의 유명 유적지를 소개하면서 헬레니즘, 로마의 변영, 최근에 발견된 고대 문명의 유적을 설명하는 강좌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 시간에는 15-16세기 여러 지역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플로랑스와 메디치 가문, 밀라노와 스포르자 가문 등이 그 예이다. 보티첼리,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화가와 알베르티, 쥘 로맹과 같은 조각가, 그 외 궁전과 정원, 성당, 조각품 등을 설명한다. 강의 기간 중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 실제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갖는다.

들라크루와에서 르누와르까지의 강좌를 보면 17세기 터어키 여행으로 시작 한 동양에 대한 관심이 18세기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어지고, 이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여행의 욕구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그동안 이탈리아로의 여행이 모든 예술가들이 가는 경로였다면 이때부터 동양으로의 여행은 새로운 여정이 되었다.

유럽 바로크 여행 강좌는 17-18세기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발견하고자 로마, 나폴리, 비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실리아 등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을 탐색하고 예술가들을 탐구한다. 독일의 바로크 양식을 살펴보는 견학과 이탈리아 여행도 계획되어 있다. 황금의 세기 18세기 예술 강좌는 네덜란드와 스페인이라는 매우 상이한 국가의 유명한 예술가를 소개하고 예술작품을 감상한다.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로 향하는 19세기말-20세기 초 예술 강좌는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는 예술운동인 상징주의와 20세기 초 표현주의, 야수파, 입체주의, 추상화, 바우하우스 등의 예술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존의 격식을 갖춘 예술 표현을 거부한 20세기 초 예술작품은 당시 사회와의 깊은 단절의 의미를 배운다.

프랑스의 성과 정원에 관한 강좌에서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성과 정원을 루와르Loire 강변가에 처음 조성하였으나 프랑스 혁명기에 쇠퇴한 것에 대해 설명해 준다. 주거지 형태에 따른 성의 특성, 성 내부의 조각품, 장식물 등에 대하여 배우고 유명한 샹보르성, 베르사유 궁전 등을 방문한다.

근현대 미술사 강좌는 19세기 말에서 현대적 창조활동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오페라 역사 강좌는 오페라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역사, 유명한 작품, 가수, 감독을 통해 오페라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 음악학 강의가 아니라 문학작품, 영화, 회화 등 다양한 예술표현의 형태를 참조하며 진행한다.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강의는 오페라를 다시 보며 노래를 듣는다. 또한 랭Rhin 오페라 극장을 탐방하여 극장의 구조를 살펴보고, 공연 연습 중인 팀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는다.

영화 강좌는 세계 영화계의 가장 위대한 감독들을 탐구한다. 비스콘티, 프리츠 랑, 오손 웰즈, 아키라 쿠로사와, 장 콕토, 히치코크 감독 등 그들의 유명한 작품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의 연대순 분석, 스토리 진행 방식, 주제 분석 등을 시도한다. 감독의 영화를 발췌하여 함께 관람하기도 한다.

◇ 심리학

심리학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4가지 종류의 야간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심리학psychologie sociale으로 사회학의 인접학문이다. 집단 전체

를 분석하기보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을 강조한다. 사람이나 소집단에 관심을 갖는다면 부부나 연인, 가족, 리더십, 태도 등이 주제가 되고, 집단의 현상을 접근하면 선입견, 소문, 군중 심리, 사회계층을 탐구한다. 둘째는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ie 강좌이다. 이 학문은 정신이상에 관한 분야이며 특히 신경증, 강박증, 우울증을 설명하면서 증상, 형태, 변화 등을 설명한다. 사이코패스, 섭식장애, 성도착증과 같은 행동 특성을 배우고 의학적 진단, 정신분석가, 인지행동치료자, 인간중심치료의 개입 원칙과 적용을 이해한다.

셋째, 심리학 관련 강좌는 성격과 인격personalité et caractère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다. 성격은 서양에서 매우 분명한 개념이지만 문화마다 같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속학, 임상심리학, 심리검사, 필적 감정, 정신분석학과 관련지어 성격을 탐구한다. 또한 유전, 계층,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 신체구조와 성격의 관계를 살펴본다.

네 번째 심리학 강좌는 심리적 고통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개설된다. 신경증 환자의 고통, 사고를 당한 후 감정 쇼크, 업무 스트레스, 중환자의 절망, 간병인의 불편함, 교수자의 불만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사회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리적 고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현상이 너무나 대중적이어서 병명을 갖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한지를 설명한다. 20세기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연구의 역사와 변화를 통해 심리적 고통의 명확한 개념을 형성해간다.

◇ 사회학

이 분야에는 한 개의 강좌가 있는데 강좌명은 도시 공간의 변형이라고 한다. 유럽 대륙 도시들의 정비, 도시 관리, 도시 간 개발 등을 다루며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성, 지역 위원회 활동 참여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 천문우주학

모두 2개의 강좌인 입문반과 심화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저녁 6시 30분에 천문대에서 이루어진다. 입문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별을 관찰하며, 하늘과 다양한 천체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는 강의이다. 심화반은 천문학

이 과학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로 수학과 물리학보다 먼저 연구되었고, 우주학자는 우주물리학자가 되어 우주에서 보내는 빛을 꾸준히 해독해 온 사실을 배운다. 별의 중심에서 은하계까지, 태양에서 가장 먼 퀘이사까지 등 현대 천체물리학을 발견하는 기회를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 식물학

식물학 강좌는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며, 식물의 생명과 다양성이란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와 6시에 식물연구소에서 배울 수 있다. 각 강좌의 초기에는 다양한 식물군에 대하여 그림이나 삽화를 통해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가장 기초적인 개념도 다시 설명해준다. 강의 후반부는 한 개나 여러 개의 식물에 대한 자세한 탐구와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둘째 강좌에서는 균학mycologic과 관련하여 버섯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숲에 산책을 나가 독이 있거나 몸에 해로운 버섯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강의실에서는 버섯의 생태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버섯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자세히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

입문과정은 그룹 1과 2로 나뉜다. 그룹 1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30분까지 격주로 1시간 30분씩 13회 강의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간 동안 5회의 숲 체험을 나간다. 그룹 2는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나 시간만 변경하여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까지 이루어지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숲 체험을 한다.

심화과정도 그룹 1과 2로 구분하여 자연에서 발견되는 버섯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아 숲 체험을 하고, 그 대상자는 초보 학습자뿐 아니라 선행 학습자들도 포함된다. 그룹 1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4시간 동안 숲 체험을 하고, 그룹 2는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숲 체험을 시작한다.

다음으로 예술 분야의 시민대학 강좌로 태생, 회화, 조각, 사진, 음악, 연극 등의 강좌가 있다. 연극 강좌는 초보 강좌와 심화 강좌, 가족 연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보를 위한 연극 강좌에서는 글과 인물에 접근하기 위해 연습을 통해 자신을 먼저 알아가며, 또 다른 초보를 위한 강좌는 즉흥 연극으로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개의 심화 강좌는 시민대학에서 1년간 연극

강의를 수강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물과 무대에 관한 공부를 하여 마지막에 관객들 앞에서 간단한 공연을 올리기도 한다.

그 밖에 실무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컴퓨터 활용과 시청각 기술 과정이 있으며,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되어 있다. 또한 자기개발 과정으로 글쓰기와 자기이해 강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글쓰기

이와 관련한 강좌는 모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적 글쓰기 아틀리에로 매회 3시간씩 총 13회 진행한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고, 글을 쓰는 욕구를 통해 글쓰기의 기쁨을 발견한다. 글쓰기 분야는 자서전, 소설, 시, 언어, 다양한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창조적 글쓰기 아틀리에에는 동일 시간대에 다른 강사가 담당한다. 프랑스어의 느낌을 살려 용어 선정, 문체, 작가의 의도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강의이다. 셋째는 시와의 만남으로 시를 읽고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써보는 과정을 직접 체험한다. 19세기부터 21세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명한 시를 선정하여 모방을 통해 창조해낸다. 네 번째는 고전 강좌로 2시간씩 총 20회 진행한다. 고전에서 발췌한 텍스트의 문체를 가지고 문학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을 통해 설명한다. 강의 후반부에는 여러 작가의 문체를 모방하여 자신만의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갖는다.

◇ 자기 이해

이와 관련하여 5가지 강좌가 있다. 먼저 기억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론적 설명을 한 후, 단순한 연습문제부터 시작하여 말, 그림, 수와 같은 매체로써 기억력을 강화하는데, 이때는 주의력, 조직력, 방향성, 상상력, 흥미 등이 바탕이 된다. 강좌는 매회 1시간 30분씩 총 13회가 있으며, 1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1년 동안 한 학기씩 총 2회 개설된다.

둘째 강좌는 말하기 과정으로 매 2시간씩 총 20회 동안 학습자는 의사소통 기술과 형태를 학습한다. 억양, 발음 조절, 비언어적 표현 등과 같은 의사소통의 형태와 논쟁하는 것, 의견을 발전시키는 것, 창의성을 증명하는 것 등과

관련한 내용, 그 밖에 계획을 세워 발표를 구조화한다. 이 강좌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상급학교 진학준비생, 취업면접 준비생, 그룹지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감성지능 아틀리에가 1학기 동안만 매회 2시간씩 총 12회가 있다. 오늘날 감성지능은 지능보다 중요한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다. 학습자들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게임과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한의 학예의 입문과 진단 방법론 연구가 개설되어 있다.¹³⁾

지금까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시민대학의 프로그램과 강좌 개설 현황을 살펴보았다. 시민대학도 일반 대학처럼 9월에 강의를 시작하여 그 다음 해까지 이어지므로 2010-2011년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며, 개설 강좌의 수는 거의 1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시민대학은 일반 대중들에게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평생학습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유럽시민대학은 알자스 지방의 작은 도시 아그노Haguenau와 비상부르Wissembourg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독일 마을 켈Kehl 시민대학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개설 과정 분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설강좌 분야	개설강좌 종류
외국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현대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프랑스어	모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지역어	알자스지방 언어와 문화
인문사회	철학, 역사학, 예술사, 심리학, 사회학
자연과학	우주론, 천문우주학, 식물학
예술과정	태생, 회화, 조각, 사진, 음악, 연극
신체건강	균형과 이완, 체조, 춤, 여가와 취미
실무과정	컴퓨터 활용, 시청각 기술
자기개발과정	글쓰기, 자기이해

13) 유럽시민대학은 2010-2011년 프로그램 안내서에 한의학 입문과 진단 방법이라는 두 강좌를 자기 이해라는 범주 안에 제시하고 있다.

2) 운영 방법

유럽시민대학의 강의는 주당 1시간 30분으로 1년에 26회로 이루어지는 단순 강의가 있고, 집중 강의는 1시간 30분씩 주 2회 총 52회로 구성된다. 강의 장소는 모두 33곳에서 강좌가 이루어진다. 대학 강의실, 연구소, 천문대, 교사 교육대학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강사는 시민대학의 민주적인 목표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 원칙, 기대 수준, 보장 내용, 참여 활동 등 모두 네 가지 분야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일반 원칙을 보면 강사는 지식의 공유, 상호 의견의 존중, 상업 광고와 지나친 선전 금지 등을 꼭 지켜야 한다. 시민대학은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장소, 물리적 여건, 지속시간, 시간표 등에 관한 운영을 책임 맡는다. 교육을 마치고 관리 평가하며, 평가 후 종합의견은 추후에 피드백 한다.

둘째 강사에 대한 기대수준은 모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사 자신이 다루고자 했던 주제를 완벽히 이해한다. 둘째, 지식과 지식에의 접근 방법 또 지식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춘다. 셋째, 그는 학습자의 의견과 요구를 들어주고, 적절한 발언을 하여 자신을 표현하며, 규칙과 시간 분배 등에 대해서도 학습자 집단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교수매체를 다루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대학은 강사들에게 사적인 생활을 존중해주고 프랑스 시민대학연합AUPF이 지향하는 방법과 일치하는 조건에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여건을 지원해주며, 적절한 교육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표와 시간수를 존중하고, 시민대학연합의 책임자 동의가 있을 때만 급여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강사는 시민대학 교육팀의 구성원이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시민대학의 운영을 개선해갈 수 있다.

방학은 학기와 같이 진행되어 1년에 모두 4회가 있다. 학기가 보통 9월에 시작하여 투생Toussaint 방학은 보통 10월 23일에서 11월 4일까지, 크리스마스 방학은 12월 18일에서 다음해 1월 3일까지이다. 겨울 방학은 2월 19일

에서 3월 7일까지, 부활절 방학은 4월 16일에서 5월 2일까지 지속된다.

시험은 프랑스 시민대학 언어강좌 수료증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에게는 1급 수료증, 고급 수준 이상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2급 수료증을 준다. 시험은 5월 중에 등록하여 6월 초에 실시되며, 응시료는 15유로 정도 지불한다.

2. 캉(Caen) 시민대학 모델

철학자 M. 옹프레Onfray는 19세기 말 드에름Deherme의 시민대학 발생 초기의 특징을 계승하여 2002년에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캉Caen에 시민대학을 설립하였다. 설립의 목표는 지식에 대한 욕구, 교육의 무상성, 상호성 등을 결합하여 문화를 대중화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는 철학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말한다(Defraigne-Tardieu, 2009: 97-98).

옹프레는 캉 시민대학을 설립할 때, S. 오프레Auffret, G. 주느비에브 Geneviève, G. 폴루앵Poulouin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지인이나 친구들이 모인 지식인 집단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를 둘러싼 친구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지만 동질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이라면 각자가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옹프레(Onfray)가 설립한 시민대학은 지적인 요구가 높은 전통적인 대학의 기능과 철학 카페가 보여주는 대중적인 기능을 동시에 취하였다. 전통 대학에서는 정보의 질과 개인의 진보를 허용하는 원칙을 추구하며, 강의를 먼저 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반면 철학 카페에서는 대중을 위한 개방이라는 원칙 아래 지식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강의의 내용을 쉽게 구성하고자 대화를 우선시한다.

이런 시도가 캉 시민대학에서 처음 이루어진 후, 8개의 다른 시민대학이 설립되었다. 2005년에 리옹(Lyon) 시민대학이 문을 열었는데 특히 설립자인 Ph. 코르퀴프Corcuff는 일반 대중이 전통적 교육모델인 대학교에 쉽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시민대학을 통해 지식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도록 했다.

이어서 프랑스 남동부 지역(나르본, 페르피냥, 몽펠리에, 아비뇽, 그르노블,

엑스, 니스, 님프, 탕스, 툴루즈)과 북서부 지역(캉, 아르장탕, 아라스, 생 브리익)으로 15개 정도의 시민대학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 이들 시민대학은 캉 시민대학과 성격 및 운영 방식이 비슷하다. 이런 시민대학들은 서로 간의 갈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캉 시민대학의 옹프레와 리옹 시민대학을 잘 조직 운영한 Ph. 코르퀴프(Corcuff)에게 좌파적 성향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시민대학의 강의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다.

둘째는 정통성의 문제이다. 교양문화의 정통성은 철학, 인문학, 예술, 자연과학, 과학기술과 같은 주제와 교수자의 약력에서 드러난다. 교수자는 근본적으로 지식인으로서 대학교수, 중등교사, 예술가, 심리학자 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대학의 교수진은 지식인의 세계에서도 중간 정도의 지식인이다. 말하자면 정교수 보다는 조교수 이하, 대학교수 보다는 중등학교 교사, 소규모 대학의 학위소지자들이 더 많다.

셋째는 사실 상상교육이지만 시설을 대여한다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자원 봉사하는 교사들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캉 시민대학은 지방의회에서 연 40000유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외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기도 한다. 시민대학이 작은 도시에 있으면서 대학이 인접해 있다면 강사 수급 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중부지역에 위치한 대도시 리옹(Lyon)을 중심으로 남동부 지역에 이런 유형의 시민대학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다.

2010년 가을부터 옹프레를 비롯한 캉 시민대학 강사진들은 자신의 강의 주제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파리의 룽 프앵(Rond Point) 극장에서 매주 목요일 12시30분에서 2시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0월부터 옹프레의 주도 아래 여러 지인들이 함께 모여 캉 Caen 밑에 위치한 아르장탕(Argentan)시에서 맛과 요리 시민대학(université populaire du goût)을 운영하고 있다.

1) 교육과정

캉 시민대학의 2010-2011년 교육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제시한

강좌 순서가 바로 강의를 진행한 순서이기도 하다.

2010년 11월에 개설된 강좌명은 경제학, 생명윤리학, 고전작품 읽기와 코멘트, 재즈, 수학, 노르망디 세미나, 정치사상,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현대문학, 철학, 경제학이 있었다. 12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철학, 재즈, 정치사상, 현대미술,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경제학, 재즈, 수학이 있었고 2011년 1월 강좌는 철학, 재즈, 수학, 정치사상, 영화, 철학, 생명윤리학, 현대문학,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노르망디 세미나, 영화, 철학, 경제학, 정치사상, 영화, 철학, 경제학, 정신분석학, 음악(작곡가 리스트),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가 있었다.

2월에는 고전작품 읽기와 코멘트, 현대문학, 현대미술, 철학, 생명윤리학, 재즈, 수학,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여성과 사회, 철학, 경제학, 노르망디 세미나,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재즈, 수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3월은 철학, 생명윤리학, 재즈,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정신분석학, 음악(작곡가 리스트), 영화, 철학, 생명윤리학, 현대문학, 정치사상, 영화,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재즈 강좌가 계획되었다. 4월에는 정치사상, 현대미술, 철학, 경제학, 재즈, 수학, 철학, 경제학, 현대문학,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노르망디 세미나, 여성과 사회,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재즈 강좌가 있었다.

5월에는 철학,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철학, 고전 작품 읽기와 코멘트,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정신분석학, 음악(작곡가 리스트), 철학이 있으며 6월에는 중순까지 경제학, 경제학, 노르망디 세미나가 개설되었다.

2010년 가을에서 다음 해 학기말까지 진행한 강의 순서를 보면, 문학, 철학, 음악, 미술, 정치, 경제, 사회, 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신의 일정에 맞게 다양한 장소에서 일반 대중을 위해 자유롭게 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운영 방법

Caen 시민대학은 2010년 9번째 생일을 맞이하였고, 연간 15개의 세미나가 9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연 250시간이며, 그동안 진행한 1720시간은 약 17명의 강사진이 무보수로 참여하였다.

학습자들에게도 완전히 무료로 운영하며 나이 제한이나 학력 요구 수준도 없다. 대학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수준을 평가하는 시험도 없다. 졸업장 수여도 하지 않는다.

강의는 오전 또는 오후 중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씩 진행한다. 첫 번째 시간은 논쟁적 발표를 하며 두 번째 시간은 토론을 한다. 토론 시간에는 주 3회 토론이었음에도 200명까지 모인 적이 있었다.

교육기간은 10월 중순이나 11월부터 5월 또는 6월 중순까지 이루어진다. 강의 장소는 캥 미술박물관, 극장, 기술고등학교 등 공공장소이며,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강사들은 자원봉사자들이며, 대학 내에서 문학, 철학, 사회과학을 전공한 교수들로서 지식의 형식주의로 흐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IV. 결론 : 향후 전망과 시사점

지금까지 프랑스 “대학 밖 대학” 시민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먼저 설명하였다. 시민대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역사적 기원은 어찌하며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시민대학의 발전과정을 요약하였다. 또한 시민대학의 두 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시민대학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F. 샤테니에 Chateigner의 관점에 기초하여 프랑스 시민대학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프랑스 시민대학연합AUPF과 M. 옹프레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캥 시민대학 모델을 제시하였다.

프랑스 시민대학은 여타의 유럽 국가들처럼 그룬트비의 영향을 받아 모든 계층에게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지식에 접근하도록 하는 평등주의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1899년 처음 노동자층의 엘리트였던 G. 드에름이 사상의 협력이 라는 이름으로 첫 시민대학을 출범시켜 당시 지식인과 노동자의 교류를 실천하고자 하였지만 그 꿈을 제대로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프랑스령과 독일령을 반복하던 알자스 지방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대학이 나타났고 현재는 매우 큰 규모의 유럽시민대학으로 발

전하였다. 프랑스 시민대학연합(AUPF) 단체를 발족하여 프랑스 본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였다.

이어서 유럽시민대학이 개설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강좌명과 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2010-2011 학년에 개설한 강좌수가 거의 1000개에 육박하고, 강좌 내용도 외국어, 모국어, 알자스 방언 등 언어 이외에 철학, 우주론, 역사학, 예술사, 심리학, 사회학, 천문우주학, 식물학 등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을 포괄한다. 예술분야의 강좌는 데생, 회화, 조각, 사진, 음악, 연극 등이 있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 활용, 시청각 기술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위해 균형과 이완, 춤, 체조 등이 개설되었고 여가와 취미 과정으로 게임, 패치워크, 바느질, 꽃꽂이, 원예, 양장업, 요리와 식탁꾸미기, 회계, 수학과 기하 등이 있다. 자기 개발 과정으로 글쓰기와 자기이해 과정을 개설하였다.

또 다른 시민대학의 유형으로 2002년부터 철학자 M. 옹프레는 교양과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캥 시민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정통 철학자들에게 학술적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철학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Chateinger, 2010). 그의 강의 콘텐츠는 TV나 라디오에 방송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강의 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그는 캥 시민대학을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강의를 하지만 방송국은 약간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벌써 9년째를 맞이하는 캥 시민대학의 모델은 리옹 시민대학 설립을 시점으로 프랑스 남동부와 북서부 지역에 확산되었고, 지금은 15개 정도의 시민대학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옹프레는 17명 정도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대학의 학기에 맞추어 1인 1강좌를 제공하도록 주관하고 있다. 강좌명은 현대문학, 현대미술, 음악, 고전작품 읽기, 철학, 청소년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아동을 위한 철학 아틀리에, 정치사상, 경제학, 생명윤리학, 수학, 재즈, 여성과 사회, 노르망디 세미나 등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주제를 일반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2010년 가을부터 옹프레 팀은 파리로 진출하여 매주 목요일 롱 프앵 극장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시민대학의 유형을 살펴보면 매우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유럽시민대학은 학술적 성격을 가진 강의 주제도 있지만 언어, 취미, 실무 능력, 자기개발 과정 등 재미있는 주제와 어렵고 무거운 주제의 강좌를 동시에 개설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는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반면, 강 시민대학은 무료로 언제든지 강좌에 참여할 수 있고 특별히 요구하는 학력도 없다.

앞서 두 가지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언급한 프랑스 시민대학의 특성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 강좌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미 시민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지역의 시민아카데미나 대학 연구소 또는 유관기관을 통해 보급되었지만 프랑스의 시민대학 사례에 기초하여 운영한다면 대중들에게 지금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 시민대학 모델을 참고하여 그동안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었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관련 강의들을 청소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쉬우면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는 주로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 전문가 그룹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게 강의 내용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들에게 사회봉사의 기회가 되고, 퇴직자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모든 연령의 일반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이 갖는 본래의 기능과 더불어 시민대학은 “대학 밖 대학”으로서의 교육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식의 전달과 확보가 대학 내 구성원들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대중화하고자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청년 학습자에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교육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대상을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개설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격증 과정이나 실무형 교육이 대부분이다. 대학 내에 개설된 일반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이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대중들에게 보급됨으로써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대학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이런 변화의 시작은 대학 구성원에게 달려있다. 옹프레는 철학의 대중화를 실천하고자 교직을 스스로 그만두고 대중적인 철학 강좌에 몰두한다. 대학 내의 철학교육만 중요하다고 보았다면 그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 구성원들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의실 안에서만 접근하던 교육은 이제 일반인들과의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거기에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무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박탈된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 배움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도 시민대학의 다양한 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시민대학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주로 소개하였지만 그 밖에 노년대학이나 모든 지식을 다루는 대학, 자유시간 대학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한다¹⁴⁾. 이처럼 시민대학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노인,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에게 적합한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보완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박효진(2007)이 구분하였듯이, 시민참여형, 학과연계형, 의식변화형 시민대학의 유형처럼 다양한 형태의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시민대학 사례를 보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심도 있는 학문적 주제가 이제는 대중화 노력으로 강의실 밖으로 진출하였고, 일반인들은 시민대학을 통해 평생 학습의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대학의 문을 개방하는 것이 요구되고, 일반 시민은 대학교육에 참여를 원하면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대학의 지식과 자원의 개방은 우리나라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차원을 넘어 특강이나 강연, 시민과의 대화 등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지적 수준과 성찰적 사유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14) 프랑스의 시민대학은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년대학이나 모든 지식을 다루는 대학, 자유시간 대학, ATD Quart-Monde 시민대학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프랑스 사례 중 유럽시민대학과 시민을 위해 대학 강의의 개방성을 실천한 칸 시민대학 모델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후속 연구에서 두 가지 사례 외에 다양한 유형의 시민대학을 설명할 예정이다.

❖ 참고 문헌

- 김근혜. 『한국 시민운동단체의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세희. 「프랑스의 대안대학」. 『민들레』. 통권 38호. 2005. 90-97.
- 박효진. 『평생학습도시 시민대학 운영 모델 비교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서지현. 『독일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의 평생교육학적 의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양병찬.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대학의 역할」. 『사회교육학연구』. 통권 2호. 1998. 179-203.
- 정수복. 「시민대학, 세상을 재교육하다」. 『시민의 신문』. 2005.
- CHATEIGNER, Frédéric, *Les principaux types d'universités populaires en France*, Synthèse de la communication présentée, 2010, 8p.
- CORCUFF, Philippe, “L'alliance conflictuelle de l'université et du peuple. Education populaire: une actualité en question”, *Agora*, revue de l'INJEP, n° 44, 2007, 36-44.
- DEFRAIGNE-TARDIEU, Geneviève, "L'Université populaire Quart Monde. La construction du savoir émancipatoire", Communication au colloque de Cerisy-la-Salle, *Les Universités populaires hier et aujourd'hui*, août 2008.
- DEFRAIGNE-TARDIEU, Geneviève, *L'Université populaire Quart Monde. La construction du savoir émancipatoire*, Thèse de l'Université de Paris VIII en Sciences de l'éducation, 2009.
- JEANNERAT, Marc & RAMBAUD, Denis, *Apprendre avec plaisir, Refonder des relations sociales*, Paris: Chronique Sociale, 1999.
- MERCIER, Lucien, *Les Universités Populaires 1899-1914 Éducation populaire et mouvement ouvrier au début du siècle*, Paris: Editions Ouvrière, 1986.
- MIGNON, Jean-Marie, *Une histoire de l'éducation populaire*, Paris: La découverte, 2007.
- ONFRAY, Michel, *La communauté philosophique*, Paris: Galilée, 2004.
- ONFRAY, Michel & Bouchain, Patrick, *Suite à la communauté philosophique*, Paris: Galilée, 2006.

- Poujol, Geneviève. *Éducation populaire : le tourant des années 70*, Paris: L'Harmattan, 2010.
- RICHEZ, Jean-Claude, "La mémoire légendaire de l'éducation populaire", *Pour*, n° 181, 2004, 106-114.
- TÉTARD, Françoise. "Vous avez dit éducation popluaire. Itinéraire chronologique. Education populaire: une actualité en question", *Agora*, revue de l'INJEP, n° 44, 2007, 74-89.
- UNIVERSITÉ POPULAIRE EUROPÉEN, Le livret du programme 2010-2011, 2010.
- VERRIER, Christian, "La liberté d'apprendre et d'enseigner dans les universités popluaires", *Communication*, n° 427, Biennale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 Paris-La Sorbonne, 1994.
- VERRIER, Christian, "Éducation populaire, citoyenneté, culture et pédagogie", Les pratiques contemporaines de l'éducation populaire, *Pratiques de formation*, n° 49, 2005, 29-48.
- <http://www.universitepopulaire.eu/Histoire-de-l-AUPF.html>(프랑스 시민대학연합 사이트)
- <http://www.u-populaire-europeenne.com/>(스트라스부르 유럽시민대학 사이트)
- <http://upc.michelonfray.fr/>(강시민대학사이트)

❖ ABSTRACT

Study of Operation of Civil College,
"the College outside College," in France

HWANG SungWon

Civil college is a public educational institute for theoretical and practical learning.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context behind France's civil college and how it is being operate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to examine Germany in terms of lifelong learning or adult learning, but there is almost no study on Franc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history and operation of civil college, the "college outside college," in France and what Korea should learn from it.

The civil college of France can be discussed in two contexts: first, it is AUPF, which stands for the French association of civil colleges, and it was mostly influenced by Northern Europe and Germany. Second, it is Caen Civil College, which was established by M. Onfray based his philosophical collaboration.

The European civil college opened almost 1,000 courses in 2010-2011 for a variety of subjects, including Foreign Languages, Mother Tongue, the Dialects of Alsace, Philosophy, Cosmology, History, Art History, Psychology, Sociology, Astronomy, Botany, and Natural Science. Courses in Fine Arts include drawing, painting, sculpture, photography, music, and theater.

For another form of civil college, Philosopher M. Onfray has been operating Caen Civil College since 2002 for general education and cultural education. It is not acknowledged by conventional philosophers, but it is contributing to the popularization of philosophy.

In conclusion, the civil college in France has brought in-depth philosophical discussions out of the lecture rooms in an effort to popularize learning, making lifelong learning more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Key Words

시민대학, 프랑스, 프랑스의 시민대학연합, 옹프레, 평생학습

Civil College, France, French Association of civil college, M. Onfray, Lifelong learning

논문접수일: 2011. 10. 25.

심사완료일: 2011. 12. 02.

게재확정일: 2011. 12. 09.